

# 동북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 연구

오해섭 윤철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동북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 연구

오해섭 윤철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 연구 ▶▶▶

##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김 광 역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위 원	김 우 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 영 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 하 미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
	최 진 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흥 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8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약



##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한 중기적인 국가적 프로젝트의 한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 연구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실태파악 및 장애요인을 토대로 각 부문별 인프라구축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이미 제2차 국제청소년교류 사업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청소년교류 및 협력사업의 인프라과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학계,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중일 3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도시협약 등과 같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재정,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영역별 지원시스템 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국제교류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성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기본 틀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북아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2. 결론

첫째, 세계적인 블록화 현상과 동북아 주변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동북아 국가들은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신뢰, 협력, 상생의 공동가치를 통해 동북아 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으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및 동북아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진정한 동북아 시대의 구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일차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교류에 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추진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을 주도할 각국의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는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만 기댈 수 없음을 반증하는 의미이다.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 간 교류는 자칫 정권의 이념이나, 어느 한 의사결정권자의 생각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류방법 및 국가 간 상호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풀뿌리 교류인 민간단체 간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단체 간의 청소년 교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다.

국제청소년교류의 몇몇 민간단체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하고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각종 청소년국제교류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각종 언론을 이용한 적극적인 대외홍보는 국민들에게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들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청소년문화공동체형성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국내외에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청소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도시협약 등과 같은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재정,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영역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학계,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이상에서 제시된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청소년국제교류의 평가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3. 제언

#### 가. 동북아 역내 다자 간 청소년교류에 관한 협약체결

현재까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정부가 상대국 및 교류의 인원과 시기 그리고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양자 간 교류 사업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향후의 청소년교류 사업은 국가대 국가의 양자 간 교류사업의 추진과 함께 한·중·일 3국이 합의하는 다자 간 교류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이 중요하다.

이 다자 간 협약은 연간 교류인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부담 범위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상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나. 학교교육 및 입시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필요

동북아 지역 내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공통의 당면과제는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상주의 분위기 개선이다. 한·중·일 모두 대표적인 청소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엄청난 학교 학습시간과 과외 학습활동으로 인해 청소년교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인프라구축의 커다란 장애요소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 교류활동이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각국이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활동 참여시 상급학교 진학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간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모든 교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2~3년을 주기로 보직이 변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갖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국가별 교류 사업은 민간 청소년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보조 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케 함으로써 이들에게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정부는 정책입안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단체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또한 민간청소년단체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와 함께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 라.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위한 지역별 시설확보

동북아 역내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해당 역내에 어떠한 종류의 국제교류 행사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저렴한 시설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지역의 학교 및 공공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마. 각 나라 주재공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의 공조체제 구축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교류대상국의 사회 흐름과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여 교류활동 추진과정에 필요한 법·제도 관련 정보는 교류사업의 기획과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하나의 데이터화되어 지속적인 청소년국제교류의 중요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에 있어 대부분 인터넷과 홍보책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신 정보를 얻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교류대상국에 직접 직원을 파견할 경우 비용과 인력 등의 제약조건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 현재 동북아 지역 내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공관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매우 생산적인 공조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바. 청소년교류 항공요금에 대한 특별요금 적용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개인,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 청소년단체, 그리고 정부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참가자 수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각국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항공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청소년교류 참가자에 대한 규정마련과 함께 특별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항공료 부분이며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학교와 민간 청소년 단체차원의 국제교류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 펀드 설치

동북아 국가들 대부분이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각국의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에서의 출자를 통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동북아 역내 교류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외에 자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의 소비자인 청소년 교류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산발적인 지원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펀드를 조성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 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및 청소년교류채널 확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는 상대국 청소년들에게 초기정착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거나, 비자 기간을 2~3년으로 확대, 취업을 위한 데이터뱅크 구축과 함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법적 제도보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동북아 역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시대가 정착되면서 컴퓨터, TV, 영화 등을 포함한 뉴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청소년교류에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II.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 및 시사점 .....	7
1. 유럽연합(EU) 청소년교류사업의 특징 .....	9
2. 유럽연합(EU) 청소년교류의 제도적 기반 .....	13
3. 유럽연합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실제 .....	18
4.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	22
III. 동북아 국가 간 분야별 청소년교류협의체 구성 .....	27
1. 청소년교류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및 방향 .....	29
2. 국가차원의 청소년교류인프라 구축방안 .....	36
3.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안 .....	41
4. 민간 청소년교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	54
IV.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	65
1.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실태 .....	67
2. 지방자치단체 국제청소년교류의 추진현황 .....	68
3.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체계 확립방안 .....	76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와 네트워크 구축방안 .....	81

<b>V. 국가 간 청소년국제교류 법·제도 정비방안</b> .....	91
1. 청소년국제교류의 역사비교 .....	93
2.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체계 비교 .....	96
3. 청소년국제교류 법·제도 비교 .....	103
4. 청소년국제교류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107
<b>VI.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평가시스템 구축방안</b> .....	115
1. 평가체계 구성 .....	117
2.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선정 .....	118
3. 청소년 국제교류평가지표 가중치평균 분석 .....	121
<b>VII. 동북아 및 유럽국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례</b> .....	127
1. 동북아 국가와의 청소년교류 사례 .....	129
2. 유럽 국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례 .....	146
<b>VIII. 요약 및 제언</b> .....	161
1. 연구요약 .....	163
2. 제언 .....	164
<b>참고문헌</b> .....	173



## 표 목 차

〈표Ⅳ-1〉 청소년분야 재정투자 현황 .....	70
〈표Ⅳ-2〉 청소년육성 분야 투자계획 .....	71
〈표Ⅳ-3〉 분야별 국제청소년교류의 제도적 특성 .....	73
〈표Ⅳ-4〉 지방자치단체별 자매결연 체결 현황 .....	74
〈표Ⅳ-5〉 2005년도 자치단체 국제청소년교류 현황 .....	75
〈표Ⅳ-6〉 국제협력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확립방안 .....	84
〈표Ⅴ-1〉 한·일 청소년교류 관련 법률 비교 .....	106
〈표Ⅴ-2〉 청소년 국제교류 법·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분석 .....	112
〈표Ⅵ-1〉 국제청소년교류 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119
〈표Ⅵ-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22
〈표Ⅵ-3〉 사업계획 평가지표 .....	123
〈표Ⅵ-4〉 사업과정 평가지표 .....	124
〈표Ⅵ-5〉 사업결과 평가지표 .....	125
〈표Ⅶ-1〉 일본, 중국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현황 .....	131
〈표Ⅶ-2〉 연도별 사업별 청소년육성예산(국고) .....	132
〈표Ⅶ-3〉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류 현황 .....	138
〈표Ⅶ-4〉 일본, 중국 자매결연 현황 .....	140
〈표Ⅶ-5〉 언어 사용능력 비교(평균값) .....	158

## 그림 목 차

〈그림Ⅱ-1〉 노르딕 국가들 간의 청소년 연구 협력구조 .....	17
〈그림Ⅲ-1〉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 지원센터 .....	43
〈그림Ⅲ-2〉 동북아 청소년 평화포럼 구성을 위한 지원체계 .....	53
〈그림Ⅲ-3〉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 모형 .....	63
〈그림Ⅳ-1〉 청소년분야 재정투자 현황 .....	70
〈그림Ⅳ-2〉 청소년육성 분야 투자계획 .....	72
〈그림Ⅳ-3〉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절차 .....	77
〈그림Ⅳ-4〉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 추진모형 .....	80
〈그림Ⅳ-5〉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제청소년교류협력 모형 .....	86
〈그림Ⅶ-1〉 핀란드 청소년관련 기관 협력구조 .....	160

# I

## 서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 및 지역별 블록화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도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상호교류활동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 21세기 동북아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삼국간의 청소년교류는 매년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역사적 혹은 문화적 유사성과 함께 상호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민족성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또한 감안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과 일본 간의 청소년교류 현황을 보면, 1984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년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매년 15일간 40명 규모로 초청·파견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교류인원을 3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까지의 교류인원은 초청 483명, 파견 576명으로 총 1,056명이다.

이에 비해 한국과 중국 간의 청소년교류는 1992년 8월 한·중 정식 수교 후, 양국 간 합의에 의해 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양국 간의 이해와 우호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중 양국 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 체결에 의해 매년 20명씩 10일간 2회로 확대 시행중이다. 2003년까지의 교류인원은 초청 333명, 파견 358명으로 총 691명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가수 및 배우들로부터 서서히 싹터오던 한류 열풍은 최근에는 방송통신 분야의 혁명과 함께 영화와 TV드라마를 포함한 문화산업을 비롯하여 여타 산업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동남아시아 10개국(ASEAN)에서도 급물

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간파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민간외교의 한 분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민간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사전교육과 행·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4년도 제1차 기초연구에 해당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의 제2차년도 후속작업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도 연구의 주목적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다양한 협력체제 구축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정비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가.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에 관한 심층 연구

유럽연합(EU) 협의체 주도에 의한 공동 협력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인 제1기 『소크라테스(SOKRATES I) 프로그램』과 『레오나르도(LEONARDO) 프로그램』 등을 1995년 초부터 1999년 말까지 5개년 단위로 진행하였으며, 2000년 초 1차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예산을 조정하였다. 그 후 2000년 상반기부터는 평가가 마무리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제2차 5개년도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제2차 국제청소년교류 5개년도 사업이 마무리된 유럽연합(EU)의 몇몇 나라를 방문하여 국가 간 청소년교류 및 협력사

업의 인프라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나.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학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가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에서 벗어나 이웃나라의 언어습득 기회, 역사현장 탐방, 생활 및 문화체험,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간 지식 및 기술교류를 통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시키는 토대 구축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대학 및 연구소를 포함한 학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동협의체 구성방안을 도식화하였다.

### **다. 동북아 지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한·중·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도시협약 등과 같은 교류협력관계 속에서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재정,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 **라.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교류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마련**

한·중·일 3국의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역사, 추진체계, 법·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의 청소년교류 법·제도의 정비방안과 추진체계 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마. 청소년국제교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국제교류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성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기본 틀을 개발하였다.

## 바. 동북아 및 유럽의 청소년교류협력 성공사례 분석

현재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및 유럽을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 II

#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 및 시사점



## 1. 유럽연합(EU) 청소년교류사업의 특징

유럽형 청소년교류사업의 특성은 유럽연합 협의체 주도의 유럽 공동 프로그램 사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지역(동유럽과의 교류 포함) 개별 국가 간 사업 역시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 국가 간 전략이 유럽 연합의 전략과 상충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의 전략은 바로 회원 국가들의 정책 및 전략으로 대부분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적 하위 목표들과 방법들을 체계화시켜 왔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의 영역이다. 의무교육제도가 유럽지역에 확산되고 보편화된 이래로 오늘날 유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직업 청소년이다. 따라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에는 교육과 훈련의 과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의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은 우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용성 있고 가치 있는 이웃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주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습득을 위한 상호 교류의 시작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웃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웃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해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지식 및 기술 교류를 통한 교육 및 훈련 사업에 기여 그리고 이웃 외국으로부터의 문화접변 및 문화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타문화의 경험과 이해의 통로를 터 준다.

전반적으로 유럽형 청소년 교류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지역 청소년들 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 사회의 안정 및 발전의 기초로서 청

소년 교류활동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공동의 교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각 국가와 정부 또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신력 있는 협회 및 연맹에서 주도하고, 이에 각 국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시 내용, 방법 등에 합의하여 실시하는 쌍방향 복지 및 투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럽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주체로 선정된 곳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맡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기획과 운영은 유럽연합의 협의체가 주관하고, 각국의 관할 하에 관련 청소년교류정책담당 부처 및 행정 부서로부터 시작하여 최하위 단위인 각급 학교 및 청소년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청소년복지단체로까지 긴밀하게 연계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유럽형 청소년교류 사업은 미래를 위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는 국가 투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운영 방법 및 수단으로 본다면 사회 안전망 또는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사업 모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역사와 전통이 강한 유럽지역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도 복지 사업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영역은 직업기술교류 및 직업기술교육 사업의 영역인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 학교청소년 대상의 교류사업 차원으로서가 아닌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층인 직업청소년 및 소외청소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며 투자로 시작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유럽지역 간 국제교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유럽지역간의 역사와 전통에서도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성숙과 함께 필연적으로 부수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사회계층의 불균등 해소를 통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유럽에서의 청소년교류는 오래 전부터 개별 국가들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도 촉진되어 왔다. 이는 유럽지역의 사회 안정화 전략과도 크게 부합된다. 즉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 아니면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과 반목의 역사가 깊은 유럽 대륙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웃 사회 및 문화와의 교제를 통하여 각국의 민족과 국민과 친해지고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상호 문화교류이고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이다. 따라서 문화 이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문화교류는 이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고도로 발달하는 국제산업사회의 성숙과 유럽 대륙 간을 오고 가는 엄청난 유동인구로 인하여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교류 사업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들 사이의 사회적·문화적 교류는 미래 유럽지역의 화해와 상호 발전을 약속한다. 특히 독일 통일을 계기로 급진전되기 시작한 유럽통합의 과제는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유럽 통합의 핵심전략사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오늘날 엄청난 예산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청소년교류 사업을 국정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유럽지역의 통합기구로 자리를 잡은 유럽연합(EU)에서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미래 유럽 통합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 여기고 있다.

둘째, 최근 국제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편으로는 유럽 청소년들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연합 또는 아시아연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역화를 통하여 지역블록화를 강화하려는 추세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블록화를 경계하며 동시에 유럽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미래의 투자로 간주하여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정책화하여 이 사업 영역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 왔던 독일의 경우 실지로 유럽 통합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에 대한 성과는 유럽형 청소년교류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에 비교적 충실한 결과에서 연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보기로서 삼고 있다.

청소년교류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바람직한 유럽공동체에서의 각 개인의 삶의 조건과 환경 등에 대한 폭넓은 인식 및 이해 그리고 새로운 조건 및 환경의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물론 교류 사업에 대한 성과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국제 문화 학습 능력과 문화체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차원이 아니면 유럽연합 개별회원국의 차원에서 볼 때,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유럽 지역에 속하는 개별 국가와 민족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고유한 문화영역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게 하고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유럽통합을 계획하는 유럽 사회는 각 개인들 사이의 만남을 보다

개방하여 이를 통한 상호이해 및 유럽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럽지역 주민들 사이의 공영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럽지역 간의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의 추진 방법은, 유럽 연합 협의체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가칭)유럽지역의 연합체가 기획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유럽지역 각국 정부에 제안하고, 각 국가는 여기에서 제안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협의체의 회원국이 되며 회원국별로 예산 지원에서부터 행정적 협조까지 할당된 과제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유럽연합의 공동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주도하는 유럽지역 간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들은 주로 자국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된다.

유럽지역의 개별국가간의 교류 사업일 경우에도 국가 간의 협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도시간의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별 또는 사업시행의 단위별로 공신력 있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기서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사업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 2. 유럽연합(EU) 청소년교류의 제도적 기반

### 가.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 :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으로, 유럽의 정치·경제 통

합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기구이다. 회원국은 2002년 15개국에서 2004년 5월 현재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하여 가맹국 수가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유럽연합은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 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유럽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며, 미래 유럽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통합유럽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 TEC) 제3부 공동체정책(Community Policies)의 3장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Youth)’ 제149조에서 유럽지역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교육 분야의 실천 목표에 대해서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며, 사회교육지도자(Socio educational instructors)의 교류를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나. 청소년백서 발간과 유럽의 협력구조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은 청소년분야에서 지역 내 국가 간의 협력과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전개해 왔으며, 이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각국의 청소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01년 ‘유럽 청소년정책에 관한 백서(White Paper—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를 발간했는데, 이 백서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구조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를 향한 정책의 명확하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청소년참여를 통해 공동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방안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백서 발간에 이어, 2002년 6월 열린 유럽이사회는 청소년분야의 협력구조에 대한 결의를 통해 향후 유럽지역 청소년 정책과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은 유럽지역 청소년 협력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협력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청소년들의 시민사회(civil society)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협력구조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개방적 조정체계(open method of coordination)를 적용하고 둘째, 청소년 이외의 다른 정책 부문과 프로그램에 '청소년' 부문을 상당히(greater)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 다. 청소년 교류정책 및 추진체계

유럽연합에서 청소년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 등이 존재하는 유럽의 통합을 위한 과정과 노력에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교류정책의 목표는, 청소년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럽 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며,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관을 강화하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대항하며, 연대의식을 개발하고 진취적인 기상 선도의식 및 창의성을 격려하며 비형식교육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청소년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든 사람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게 하는데 있다.

청소년 교류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것이 YOUTH programme(청소년 프로그램 : 이 청소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유명사로 사용됨)이다. YOUTH programme은 하나의 단일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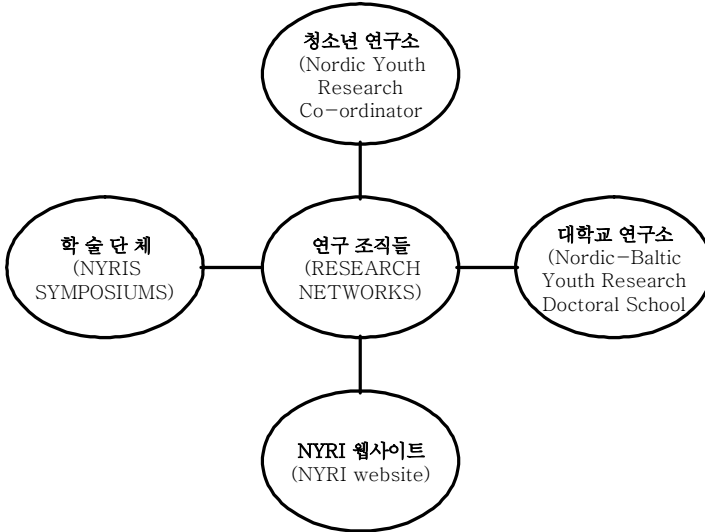
나라, 유럽연합의 청소년사업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 프로그램은 15~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성(mobility)을 가진 비정규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30개국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단체교류나 개별적인 자원 활동 모두 참가가 가능하다.

2000년 4월,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되는 YOUTH programme을 채택하였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전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청소년들의 지식습득과 청소년정책개발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다음의 것들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① 유럽청소년교류(Youth for Europe exchange) ②유럽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European Voluntary Service) ③집단교류활동과 미래자본(Group Initiatives and Future Capital) ④ 교육프로그램인 SOCRATES 와 직업훈련인 LEONARDO DA VINCI 와의 연계활동 ⑤지원수단들(supporting measures).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Youth for Europe 프로그램과 European Voluntary Service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 지역 단위의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하였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또한 <그림 II-1>에서와 같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은 청소년 정책 및 활동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기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간 청소년 정책을 비교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외부 세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그림 II-1〉 노르딕 국가들 간의 청소년 연구 협력구조



YOUTH programme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이지만 기타 지역, 국가들을 참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의 국가뿐 아니라 유럽연합 미가입국(동유럽 국가 및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제3세계와도 실행이 가능하다(지중해지역, 동남유럽, 독립국가연합, 남미국가들).

청소년교류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주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다. 이곳의 청소년 팀에서 교류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한 참가대상 30개국 전체에 YOUTH programme을 위한 국가대행기관(national agency)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이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촉진과 실행을 지원한다. 이 기관들은, 유럽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관련 이슈나 단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정통하다. 각 국

가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국가, 지역, 지방단위의 프로젝트 추진자들과 청소년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연락사무소이다. 각 기관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파트너를 찾아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집행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들은 프로젝트 추진자들에게 조언을 하며 여러 다양한 훈련프로그램들을 조직한다. 각 국가기관은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처가 된다.

‘유럽-지중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국가조정자(National Coordinators)가 유럽지역의 국가대행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12개 지중해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조정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추진한다.

### 3. 유럽연합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실제

#### 가. Youth for Europe(유럽 청소년)

1988년 유럽연합은 Youth for Europe(유럽 청소년)프로그램을 창설하여 각국의 청소년교류를 지원했다. 1989~1991년 사이에, 15-24세의 청소년 약 80,000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1991년 7월에 European Commission의 조약 149조에 기초해서 Youth for Europe II가 채택되었으며, 1995년 3월에 프로그램의 3단계가 시작되어 1999년에 종료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직접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른 현실(realities)과의 접촉을 통해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각 문화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편

견이나 고정관념을 고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교류를 통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청소년 자신과 자신이 소속한 집단(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2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소년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직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국가 간의 교류는 양국 간, 삼국 간, 다국 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프로그램은 반드시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국가 중 한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 프로그램은 반드시 상호교류일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파견단체는 프로젝트의 2번째 단계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다국 간의 교류가 순회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류집단이 활동기간 중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는 것이다.

## 나. 유럽자원봉사활동(European Voluntary Service)

199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단순 교류를 뛰어넘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유럽자원봉사활동’이라는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me for a European Voluntary Service for young people)을 시작했다. 이후 이것은 성공적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으로 정착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자원봉사활동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청소년들(18~25세)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들이 비 정규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첫

째, 청소년들에게 비정규 다문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적 통합과 능동적 참여를 권장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며 다른 사람과의 연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사회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새로운 협력자 관계를 확립하고 협력자간의 경험과 사례들을 교환하도록 권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자원 활동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 활동 분야는 환경, 예술과 문화, 아동, 청소년, 노인, 문화유산, 스포츠, 여가 등과 관련된 활동이다. 자원 활동가는 몇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영리이며 무보수이고 지역사회에 유익하고 정규 일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 기간만 활동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원 활동 프로젝트는 일대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한명의 자원 활동자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관련된 프로젝트는 프로그램국가에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직접 다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 활동가, 파견단체, 주관단체 등 세 주체들 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프로젝트에 포함된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는 반드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 라. Connect Youth 프로그램

Connect Youth(CY)는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한 부서(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Group)로서 영국과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비공식(non-formal)교류를 추진한다. CY는 청소년들이 국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단체교류에서 개별 자원 활동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CY는 또한 청소년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다.

CY의 활동 재원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외교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등으로부터 지원받는다. CY는 영국 전역에 있는 12개의 지역위원회(committees)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 위원회가 대부분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며 활동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지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한다.

CY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청소년들이 외국의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 대신에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권장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사회에 정당한 권리(valid stake)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셋째, 정규교육 발전에 기여 한다. 넷째, 고정관념을 깨고 인종에 대한 관용을 기른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CY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개방되어 있으며 가입자격은 없다 가능하면 외국에 갈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한다. 해외에 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교류, 청소년창안(youth initiatives), 유럽 자원활동, 영어여름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청소년지도자들과 비정규교육 분야에서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상담원, 멘터, 청소년정보처리사 등)에게는 job shadowing, 훈련과정참가, 타당성조사, 다국가 협력, 세미나, 청소년 정보수집, 네트워크 개발세미나(contact-making seminars), 프로그램 질 향상과 개선방안, 학습여행, 언어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CY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유럽연합 청소년프로그램(YOUTH Programme)의 5가지 프로그램
- ② 상호교류(bilateral youth exchange) : 영국과 비유럽국가간의 교류
- ③ 영국-아일랜드 청소년교류(causeway British-Irish youth exchange) : 영국과 아일랜드 청소년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교류
- ④ 영어 여름캠프(English language summer camp) : 18-25세의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나라에 가서 다른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 ⑤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언어 문화강좌(Language and Culture course for Youth Workers) : 청소년지도자들이 매년 여름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언어문화강화에 참여하여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⑥ 유럽연합 YOUTH Programme 이 지원하는 상호교류 이외에도 중국, 이스라엘,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특히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가자(Gaza)지구와 서안지구(West Bank), 미국 등과의 상호교류를 위해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이 있다.

#### 4.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우리는 현재 지리적인 국경이 없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 혹은 민족 간의 문화적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특히 글로벌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 간의 문화적인 소통과 활발한 교류는 국제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확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간 갈등과 종교적인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와 공존을 달성해야하는 당위성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경제공동체 형성의 선행적 혹은 병행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화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인터넷망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문화교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이미 주요 도시, 주요 항구간의 무역, 운송, 금융, 관광, 환경보호, 정보, 과학기술, 문화교류 분야에서 인터넷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가 지구촌 문화공동체 형성의 접근 용이성과 핵심적인 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 국가 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 간의 다각적인 청소년교류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문화공동체 형성을 주도할 인재양성 전략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상품을 개발해내야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 수요층이 두터운 영화 및 음악 등과 같은 청소년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북아지역 청소년 문화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 그리고 학계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국이 나름대로의 청소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성 정치인들의 편견과 상호 간의 입장차로 인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청소년 문화산업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 하려는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에 대한 문화이해 교육을 통한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오듯이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몇몇 지역을 둘러보는 식의 국제교류는 그 효과 면에서 회의적인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구상은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공통점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작업에 기초하여 다른 분야까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고 상호호혜성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과 공동운명체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윈윈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국가 간 이상적인 청소년문화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 정치·경제적인 측면의 확고한 인프라구축을 토대로 다방면의 사회적인 측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차원의 청소년문화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추진되어야 할 측면은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의 문화공동체형성 혹은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유럽 국가들 간에는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 및 문화적 교류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완화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범위가 동유럽 국가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면, 동북아공동체 차원에서의 예산확보 및 민간차원의 협력기금조성,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III

## 동북아 국가 간 분야별 청소년교류협의체 구성



## 1. 청소년교류협약체 구성의 필요성 및 방향

### 가. 지역블록화와 동북아교류협력<sup>1</sup>

세계는 국제화 혹은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유럽은 1991년 12월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따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미주대륙은 1992년 8월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단일 경제체제로 재편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967년 이래 이 지역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결성하여 경제·문화발전과 과학기술, 식량·에너지, 안전보장 등에 대한 협력과 영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예컨대 1983년 ASEAN 라운드에서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대일 수출품의 무관세화와 관세 대폭 할인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가 있다. 또한 자체 내에서의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2년에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 : AFTA)을 체결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대만, 홍콩과 아세안 회원국을 구성 멤버로 1989년 결성되어 역내 자유 무역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지역협력체는 ASEM(Asia-Europe Meeting)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개국 및 동남아의 아세안 회원국, 유럽연합(EU) 등 모두 2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정상회의가

---

<sup>1</sup> 박진규,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2004년 11월), 국제심포지엄 발표내용에서 발췌한 것임.

바로 ASEM이다. ASEM은 식민지적 지배 관계의 단절 이래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 아시아와 유럽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럽-북미-아시아 간의 3각 지역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북아협력체제의 구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안보와 평화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전체의 치명적인 이해가 달린 북핵문제를 필두로 하여 양안 위기, 영토 분쟁, 동맹관계의 재조정 문제 등, 역내의 안보적 불안 요소들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법이 공동체의 건설 과정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방대하고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아시아는 서로 가까운 지역끼리 자연히 몇 개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는, 이른바 자연적 경제지역(National Economic Territories : NETS)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 NETS의 예로 남부 중화권(중국 남부 중심), 황해경제권(산둥성과 한국 중심), 일본해경제권(러시아극동부 및 일본 북부 중심), 동아시아경제권(ASEAN국가 중심)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은 황해경제권으로 실제로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가 포함된 황해경제권은 교역이 한층 활발해졌다

세계가 지역별로 블록화의 추세 속에서 동북아에서의 협력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안보의 측면에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 체제의 구축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도한다 해서 바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는 과업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실질적이 모태가 되었던 로마조약(1957년)으로부터 유럽연합의 최종 결실의 형태



를 결정하게 된 마스트리히트조약(1991년)까지는 장장 30년이 넘게 걸렸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교류는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과업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단 협력 관계를 더욱 실질적인 협력 체제로 제고하는데도 중요하다 하겠다.

## 나.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동반자관계 구축<sup>2</sup>

제1회 동북아청소년포럼(2004)에서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된 다음의 내용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아주 시의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기존의 역사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책임이 작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세대나 전쟁의 후유증을 경험한 전후 직전세대의 경우, 아직도 상호간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청소년들의 경우 역사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비교적 거리가 멀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매우 비교적 적게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세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했던 과거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매우 자유로운 사상과 행동양식을 지닌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은 한·중·일 3국간이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하고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교류를 통해 한중일 3국을 이어주는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문화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거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매개이다. 가까운 사람은 같은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더욱 친밀한 하나로 일체감을 갖게 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

---

<sup>2</sup> 차광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2004), 제1회 동북아 청소년 포럼 자료.

은 같은 문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문화의 주요 소비자이며 생산자이기도 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게 되면 한·중·일 3국간의 협력강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인적교류는 문화적 접변을 수반하면서 교류자간의 또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문화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의 교류는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여 한·중·일 3국의 공동체 의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형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한류 열풍이 크게 불고 있는 북경, 상해, 동경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상호간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진출한 것이 이미 10년 이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연예계에도 일본의 팝송과 연예인이 진출하여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 매니아 층이 생길 정도로 일본 문화의 파급효과는 크다. 한편 아직까지 중국의 대중문화는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진 않지만 중국의 문화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의 원류를 형성하고 있어 양국 청소년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청소년교류는 앞으로 한·중·일 3국간의 미래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우선 청소년의 연령층이 대다수 10대 후반에서 20대이며, 이 시기에 접하는 지식과 각종 활동은 자아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시기는 기존의 왜곡된 상호간의 인식을 해소하고 현재성을 갖게 함으로 현재의 한·중·일 3국의 참모습을 인식하게 하며 청소년 세대가 성장하면서 각국 사회의 전반에 상호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 다. 동북아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의 기본원칙<sup>3</sup>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이 정부 및 민간단체 주도의 청소년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류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상호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와 참가자 청소년에게만 이익이 한정되는 활동이 아니라, 일정 지역과 국가의 모두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성을 지닌 활동이다.

이는 유럽의 청소년 교류에서와 미국의 청소년 교류 모두에서 내포하고 있는 가치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교류 참가자 개인에게 경험증대와 복지확대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져다주는 공익성이 큰 것이 교류활동이다. 참가자 청소년들에게 참가비용을 크게 부가하지 않으려는 배려들이 바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교류는 사회통합적인 목적과 미래의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청소년교류를 통해 공동체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을 키우고 공동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며(특히 유럽 청소년교류의 경우), 내일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소양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셋째, 청소년교류는 현재의 타당성과 아울러 미래의 가치를 축적하는, 미래 부가가치 창조 활동이다.

청소년교류는 현재의 사회문제(사회갈등과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를 해결하는 간접적인 방법이자 미래의 바람직성(사회안정과 평화의 유지)을 창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sup>3</sup> 박진규,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2004년 11월), 국제심포지엄 발표내용에서 발췌한 것임.

넷째, 청소년교류는 협력적인 활동이다.

청소년교류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진행, 평가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와 협력에서 진행된다. 예컨대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참가자, 후원자, 자원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다섯째, 청소년교류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관의 관여가 요구된다.

사회영역이 다양하게 분화됨에 따라 청소년교류의 목적도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단순한 외국어 학습 체험을 위한 교류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사회봉사, 문화교류, 체험활동, 해외선교 등, 그 형태가 다양해 질 수 있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국제청소년교류의 특성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원칙을 수립해 볼 수 있다.

### 원칙 I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실현이 용이한 교류프로그램, 시장 원리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우선 도모한다.

### 원칙 II

정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비형식 교육 혹은 직업 교육, 사회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우선 도모한다.

### 원칙 III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활동에 청소년교류가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도록 중앙정부가 권고하고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 소재 특정 청소년시설을 지정하여 그곳에 외국인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도록 체류시설, 네트워크 및 수련거리의 개발을 지원한다.

### 원칙 IV

지역 내 국가의 청소년관계 장관 혹은 외무부장관이 지역 내 국가 간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교류협정 혹은 청소년교류 시행계획서를 공동으로 체결하여 청소년교류를 도모한다.

### 원칙 V

지역 내 국가 간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국가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와 전문기관을 구성/설비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각국에 국제청소년센터를 운영하여 국가차원에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원칙 VI

지역 내 경제협력체제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여[예컨대 아시아연합(Asian Union : AU)과 같은] 지역 내 청소년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기술하고, 필요한 재정과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실행하기 전문가 집단에게 사전 연구를 의뢰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 2. 국가차원의 청소년교류인프라 구축방안

### 가. 동북아 청소년교류 장관회의 정기적 개최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3국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동북아시아지역은 문화장관,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현재 고등교육학위 인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학 간 개별교류협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formal, non-formal 교육상의 적극적 교류 외교정책 수립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의 개최이다.

유학, 여행, 취업 등 동북아 지역 내 청소년 교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지역 청소년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 회의의 개최를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① 3국간 유학, 연수, 단체여행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인프라 마련 및 동북아 청소년이동과 교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현안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 ② 서울, 북경, 동경, 부산, 상해, 오사카 등 국제 도시 간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 도시에 외국청소년 전용숙소를 설치할 것을 논의 한다.
- ③ 3국의 크고 작은 청소년 NGO들의 네트워크 형성, 교류 및 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④ 이외에 동북아 대학생간 학점교환의 인정, 교환학생제, 동북아교류협력기구 설치 등을 논의한다.

## 나. 동북아 청소년기금 조성 및 사업 개발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중·일 청소년 교류는 국가 간 교류협정에 의한 한-일 교류, 한-중 교류 형식으로 개별 국가 간 교류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동남아국가와의 교류도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등 개별 국가가 별도로 아세안과 교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동북아국가의 지역협력모델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공동개최가 일반국민의 한-일간 민족감정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사업의 개최는 지역적 유대감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는 개별 국가 간 교류형태를 벗어나 동북아공동사업 형태의 청소년교류와 사업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세안국가까지 포함하는 청소년교류협력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국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동북아 청소년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금을 동북아청소년사업의 재원으로 삼고 각 국가에는 사업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센터를 설치한다. 동북아 청소년기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 다. 국가별 청소년교류정책 및 추진체계 확립

동북아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류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중 국제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교류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의 중심부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교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개정 청소년기본법(2003.12.30)에서는 청소년교류를 청소년수련 활동, 청소년 문화활동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청소년활동에서 국제 교류활동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수요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 시스템이 취약하다. 현재 청소년교류담당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과는 정책개발보다는 외교통상부가 위임한 정부 간 청소년교류업무의 실행부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청소년교류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관계의 변화,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비의 20% 이상을 국제교류 사업비로 확보한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국가가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대형 국제교류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국제교류 사업은 성격상 고비용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 중 일정부분은 동아시아 청소년교류 사업에 할애하여 동아시아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별히 경제적 이유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 중 일정 비율을 청소년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은 대부분 행정공무원 등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교류 사업에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비율을 의무화하여 실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청소년교류기회를 확보한다.

## 라. 청소년국제교류 특성화 지역 및 시설 개발

중국, 일본 등 외국 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시설과 여행정보 제공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청소년을 위한 숙소를 확충한다. 교통편이 좋은 대도시 생활권 수련시설 중 국제화 특성화 시설을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홈스테이 연계나 도심형 유스호스텔 등 안전한 숙박시설 연계, 국내여행정보 제공 및 상담, 외국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를 비롯한 외국 청소년들이 국내에 와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촌을 개발한다. 국내청소년여행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청소년여행명소가 발굴되면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자유롭게 여행하게 됨으로써 여행을 통한 동북아 청소년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 마. 부문별 동북아청소년사업 지원

### (1) 동북아 청소년네트워크 지원

청소년 NGO의 동북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크고 작은 청소년동아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시아 문화, 역사,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 (2) 청소년지도자 훈련 및 교류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교류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교류활동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국제자원봉사활동, 문화교류활동, 동북아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포럼, 동북아 여행 프로그램 등 영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동북아 청소년지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동북아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기한다.

## 바. 동북아 청소년센터 설치

### (1) 동북아 청소년센터(동북아청소년연구원) 설치

동북아의 청소년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 문화, 역사, 일반적 사회상황 및 청소년 상황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교류사업 개발, 교류인력 양성·연수, 교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단체협의회나 중앙청소년수련원 부설기구로서 동북아시아 청소년센터를 설치하여 동북아시아청소년교류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로 동북아청소년연구원을 두어 동북아시아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동북아청소년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2)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유네스코본부, 혹은 정부 간 기구와 협의하여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센터를 국내에 유치한다. 이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더 넓게는 동아시아) 청소년의 교류중심으로 발전시킨다.

### 3.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안<sup>4</sup>

#### 가. 의미와 필요성

동북아 청소년교류가 본래의 목적인 동북아 지도력 육성과 동북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차세대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문이나 행사성 만남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교류의 핵심인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질적으로 성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집단과 교육집단으로 구성되는 학계 차원의 깊은 관심과 협력, 그리고 상호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류라는 것은 단순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으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일회적인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자 할 때, 문화적 경험이 유사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교류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큰 국가 간 교류를 하고자 할 때, 거기에다 과거 역사 속에서 상호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은 경험을 가진 국가 간 교류를 수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상호간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전문화된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그 성과를 고양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는 역사적, 문화적 차이도 크고, 각국 간 교류의 목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인 교류가 아닌 항구적인 교류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 간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 조정을 통한 전문화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교류가 진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동안 동북아 3국(한, 중, 일) 간에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이루어져 왔으나 3국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청소년교류를 수행한 적은 없다. 물론, 한·일 교류나 한·중 교류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간 교류

---

<sup>4</sup> 송병국(순천향대학교 교수)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중에서 가정 활성화된 교류지만, 매년 같은 내용의 교류가 반복되어 전문화된 교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윤철경외, 2004). 이는 동북아 국가 간 나름대로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류는 증대하고 있으나 3국이 공통적인 교류목표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통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만큼 질 높은 교류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질적 발전을 위해 3국의 연구자 집단과 교육자 집단이 함께 상호협력하고 노력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다.

## 나.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안

### (1) 조직 구성 방안

첫째, 동북아 3국, 각국이 연구자 집단과 교육자 집단이 참여하는 ‘(가칭)청소년교류협력센터’를 단위국가 수준의 협의체로 구성하고, 이들 3국 협의체가 모여 하나의 ‘(가칭)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를 구성한다. 이는 그 동안 일회적 또는 단기적인 청소년 교류가 참여 인원이 소수임은 물론 행사성 프로그램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사설어학원이나 여행사 등 일부 자격 미달의 민간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 국제교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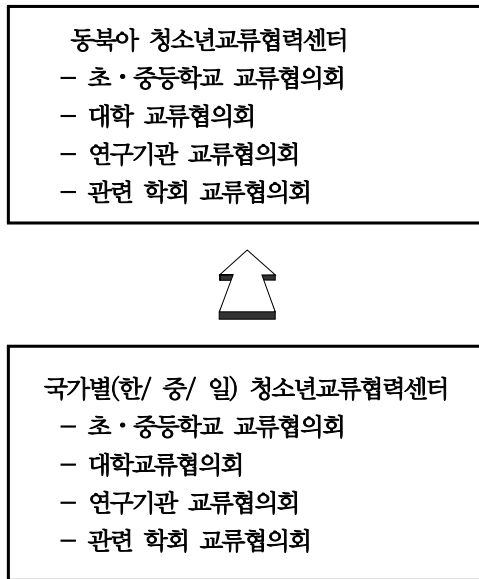
둘째,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인력과 자금 부담은 국가 간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3국이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조직구성은 2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1안은 청소년 교육교류협의회(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교류지원)와 청소년연구교류협의회(교수나 연구자, 학회 간, 연구기관 간 지원)로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대학교류협의회, 연구기관 교류협의회,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등 4 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셋째,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간 청

소년교류와 관련된 공동 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매뉴얼 개발,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다양한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수행 지원과 평가 사업,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각국의 ‘청소년교류협력센터’ 역시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대학교류협의회, 연구기관 교류협의회,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등 4개의 하부 조직을 두고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추진 하되, 매년 초 결정되는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자국의 청소년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각국의 청소년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간 교류 지원(연구자들의 교류 협력 지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의 질 높은 교류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청소년교류 지원) 등을 수행한다.

〈그림 Ⅲ-1〉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 지원센터



## (2) 주요 사업

각국의 청소년교류협력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분과 협의회와 동북아청소년 교류협력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분과 협의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가)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는 동북아 3국의 초·중등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질 높은 교류를 통해 어려서부터 동북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전문교류인력의 양성이며, 둘째는 질 높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며, 셋째는 단위 학교 간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교류의 상시화 시스템의 구축이며, 넷째는 교류 프로그램이 참여 청소년들이 동북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이다.

#### 1) 초·중등 청소년 국제교류 담당 지도교사 연수 및 워크숍

초·중등학생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며, 동시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된다. 따라서 먼저 각국이 자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자체 연수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 주관으로 3국의 초·중등학교 교사 또는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인력양성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 초·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청소년교류가 단순한 관광으로 끝나지 않고 동북아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3국의 전문가가 함께 교류프로그램별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내용을 개발하는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동북아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 초·중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시행

그 동안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주로 단기 수학여행이나 상호 방문, 방학기간 중 체류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기 프로그램만으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함은 물론 동북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가 어려우므로 3개월 이상의 해외 문화체험 인턴십, 6개월 이상의 상호 교환학생 파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4) 초·중등학생 교류 프로그램 평가

현재에도 동북아 3국간에는 여러 종류의 초·중등학생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호간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해가 갈수록 진전되기보다 오히려 초기의 강한 의욕이 떨어져 나중에는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 매년 이루어졌던 초·중등학생을 위한 각종 교류 프로그램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 5) 초·중등학생 동북교류 매뉴얼 공동 제작

인류의 사회 문화 발달과 불어 동북아 3국도 빠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초·중등학

생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러한 3국의 다양한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동북아 3국간 청소년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3국간 청소년 교류의 원칙과 합의사항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동북아 청소년교류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련된 매뉴얼 역시 3국간 합의에 따라 수시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6) 미래지향적 3국 역사문화 소개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 청소년 교류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기회의 확대에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참여한 학생들이 얼마나 상대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동북아 3국간에는 과거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하면 청소년 교류가 자국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또 하나의 장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3국의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이 각각 자국의 역사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각국의 역사 문화 소개 프로그램이 보다 일관되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의 토대 위에 개발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7) 3국 초·중등학교 간 자매결연 체결 지원

현재에도 3국간에는 지역 교육청 수준이나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교 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매결연 체결한 학교 수가 많지 않고, 또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서 3국의 초·중등학생들이 고르게 동북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학교 간 자매결연과 이를 통



한 교류활성화가 단위 학교 간 교류 차원을 넘어 동북아 공동체 의식 강화라는 대의 명제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동북아 3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상대국의 1개 학교 이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나) 대학교류협의회

그 동안 동북아 3국 사이에 대학 간 교류는 교수인력 교류와 부분적인 대학생 교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교류 기회의 절대적 확대와 교류의 질 제고라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대학교류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것이 대학교류협의회회의 임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학생 교류에 필요한 시설 및 교육 여건의 확보, 질 높은 교수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이 대학교류협의회회의 주 업무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1) 상대국 교수나 학생을 위한 시설 및 교육 여건 확보

우선적으로 교류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3국간 합의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 필요하며, 개별 대학에는 3국의 교수나 학생 교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동북아교육교류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3국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2) 실질적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현재에도 동북아 3국의 대학생들 간에는 배낭여행이나 Working Holiday 등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개인

차원에서의 관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를 보다 대학이나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초중등학생 교류 프로그램과 달라서 상당히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련되고, 민주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 공동체 의식함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대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순천향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China Village 프로그램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순천향대학교의 China Village는 중국의 대학생들이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동안 순천향대학교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한 방에 한국학생과 중국학생 함께 배치)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순천향대학교의 China Village에는 30여명의 중국 학생들이 1년 기한으로 한국학생들과 함께 생활도 하고 학점도 이수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순천향대학교 학생들 20여명이 중국의 대학에 가서 생활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대학생들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에서의 직업생활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 해외직업체험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순천향대학교의 경우 미국이나 호주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인근의 산업체에서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미국이나 호주에 나간 후 방학기간에 인근이 산업체에서 인턴십 경험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대학 간 정기적인 학생 교류를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나, 개별 대학간 2+2 프로그램을 통해 복수학위를 주는 제도의 마련은 동북아 3국이 경제 및 문화 공동체로 거듭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대학생 교류 지도교수 연수 및 워크숍

대학생 교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학생 교류를 지원하고 이끌어 갈 대학의 지도교수나 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대학생 교류와 관련된 상호 이해 연수가 필요하다. 각국의 대학 관계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상당수가 동북아 3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유사성과 세계사적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토양에서는 실질적인 3국의 대학 간 의미 있는 교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3국의 대학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대학 간 교류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대학교수 교류

현재 동북아 3국간 대학교수 교류는 연구 년을 토대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 3국의 대학경쟁력이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대학들과 견주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 대학 간 교수 교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어떤 점에서는 ‘교수인력 교류 할당제’를 마련하여 보다 강력하게 교수교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교수교류는 자연스럽게 동북아 3국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연구 수행을 가져와 학문적 교류와 함께 동북아 경제와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수 인력의 활발한 교류는 당연히 대학생들의 동북아 3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활발한 대학생 교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교류협력센터의 대학교류협의회’는 바로 대학교수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 5) 1대학 1개 이상 동북아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

앞서 제시한 동북아 3국의 대학 간 학점 상호인정이나 2+2학위제 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

다. 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은 기본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 되 각국의 대학교류협의회와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대학교류협의회가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초·중등학교 간 1개 이상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듯이 3국의 모든 대학 역시 1개 대학 이상과 교류협정을 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평가

다양한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고도 체계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 3국의 모든 대학이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동북아 3국 대학 간 교류의 활성화가 개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연결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동북아 3국간 대학 교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별대학에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참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류에 참여하는 교수나 대학생, 그리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대학자체가 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다) 연구기관교류협의회

현재 한·중·일 3국에는 청소년 분야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이들 연구기관 간 간헐적이거나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북아 3국간 아무리 외형적인 청소년교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질을 보장하지 못하면 청소년 교류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많은 동북아 3국간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국가 간에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보

면 교류의 양도 중요하지만, 교류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연구기관교류협의회는 동북아 3국 간 청소년 국제교류의 질을 제고하는 다양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 1) 한·중·일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협의회 구성

청소년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3국의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만나 공동연구나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2) 한·중·일 청소년교류 매뉴얼 및 특성화 된 프로그램 개발

3국의 청소년 교류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세부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각국에서 누가 청소년 교류를 맡게 되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내실 있는 교류가 되어야 하므로 청소년 교류에 대한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교류 협의회나 대학교류협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도 연구기관 교류협의회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임무이다.

#### 3) 청소년교류 관련 한·중·일 공동 프로젝트 및 학술세미나 추진

연구기관 교류협의회에서는 매년 청소년 교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나 학술세미나를 3국 공동으로 주관한다. 최소한도 1년에 1개 이상의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1회 이상의 공동 학술세미나가 개최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4) 3국의 연구기관 인적자원 교류

대학교류협의회에서 대학 간 중장기 교수교류를 지원하듯, 연구

기관협의회에서도 3국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상호 방문하여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분야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상대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을 때 동북아 3국의 협력체 구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탐구되어 제시될 수 있다.

#### 5) 3국 청소년 교류 관련 정보 시스템 운영

동북아 3국의 청소년들이 상대국과의 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3개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보 생산은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에서 맡되, 각국의 연구기관교류협의회에서는 자국의 언어로 전환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집한 청소년 교류 정보를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에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 차원에서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되, 이를 각국의 연구기관교류협의회에서 자국의 언어로 새롭게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동북아 청소년 교류를 위한 연구기관 교류협의회나 대학교류협의회를 연구자나 교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겠지만, 청소년 관련 학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학회교류협의회’의 조직이 필요하다. 동북아 3국을 순환하면서 청소년문제나 청소년 개발과 관련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바로 ‘관련학회교류협의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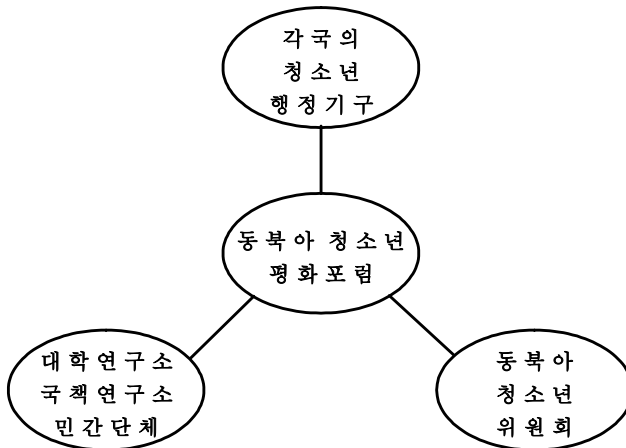
### 1) 청소년 관련 학회 협의회 구성

먼저, 동북아 3국의 청소년 관련 학회 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국에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동북아 3국간 교류하고 있는 학회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를 개별 학회의 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련학회 교류협의회’를 조직하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

### 2) 청소년 국제교류 및 한·중·일 청소년포럼개최

‘관련학회 및 교류협의회’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 3국 공동의 포럼 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적극 지원한다. 3국간 청소년 교류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및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원인 분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세미나의 개최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림 Ⅲ-2>와 같이 각 분야의 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Ⅲ-2> 동북아 청소년 평화포럼 구성을 위한 지원체제



## 4. 민간 청소년교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sup>5</sup>

### 가. 국내 청소년민간단체(NGO) 네트워크

#### (1)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현재 산발적이고 비전문적인 NGO간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묶어주고 조정하며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지난 2003년 통과한 청소년활동진흥법(제58조) 내용에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치를 계기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와 같은 청소년국제교류를 위한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청소년관련 NGO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보를 축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청소년관련 NGO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국제교류 실무자 양성교육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우 산발적이며 협력관계가 부족하다. 이들 기관들에서 국제교류 사업은 국내 각종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에 비해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여타업무의 담당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다른 업무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고도의 숙련과 경험을 요하는 분야이다. 외국과의 협약체결이나 의견조율에 있어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정치적이고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

<sup>5</sup> 지세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 부장)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별 국가의 특징과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추진할 경우 자칫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나. 한·중·일 청소년활동 NGO 네트워크 구축방안

### (1) 한·중·일 3국 청소년 활동관련 NGO의 특징

한·중·일 3국의 NGO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청소년 활동관련 NGO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 한국은 활동 면이나 내용에 있어 매우 활발하지만 몇몇 핵심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매우 정부의존적이다. 중국의 경우는 활동도 왕성하고 조직적이나 자율성과 유연성 면에서는 매우 미약하다. 또한 일본은 각 지방이나 마을 차원의 NGO 활동은 매우 잘 구성되고 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힘을 집약하는 활동 혹은 국제교류와 같은 대 내외적인 협조와 협력을 통한 활동은 정부와 같은 구심점이 없이는 매우 취약하다. 이는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청소년관련 국제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며 NGO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청소년활동을 조직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청소년관련 NGO들은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활용하느냐에 따라 3국 청소년 활동관련 NGO들의 네트워크가 성공하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

#### 1) 중국의 청소년활동과 NGO

등소평이 중국의 집권을 시작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통치 원리에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1당 지배체제

구축과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NGO의 성장에 대하여서는 매우 부정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구조 속에서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밖으로 알려진 바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NGO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변자 역할이 주요한 활동이다.

중국의 NGO는 우리나라의 NGO와는 달리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획일적이다. 그들은 중국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얼마 전 중국이 우리민족의 고대역사를 동북공정이란 연구를 통해 왜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시민사회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민주화의 신호탄이었던 천안문사태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함에도 숨을 죽이고 있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중국 NGO의 경직성과 획일성은 현재 중국의 청소년활동 NGO에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 중국의 모든 청소년관련 활동은 중국의 반관반민단체인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서 총괄관장하고 있다. 이곳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서는 외국과의 청소년관련 교류는 물론 국내 청소년운동과 활동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성(省)에 지부를 두어 전국의 청소년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매우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NGO들의 자율성은 미약한 형편이다.

## 2) 일본의 청소년활동과 NGO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정부의 NGO의 활동보다는 NPO 활동이 활발한 국가이다. NPO란 말 그대로 NGO가 가지고 있는 비영리적이며 반정부적인 성격보다는 비영리성을 표방하는 기관이나 단체이다. 이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처럼 몇몇 주요 단체가 중심이 되는 NGO 운동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건강한 NPO 활동이 매우 활발한 나라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차원의 NPO 운동이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의 지원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소규모 위주의 활동은 자발성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거나 청소년국제교류와 같은 예산과 역량이 많이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청소년관련 국제교류활동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관련 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2) 한·중·일 청소년활동 NGO 네트워크의 방향

한·중·일 청소년 활동 NGO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현재 한중일 3국간 청소년단체협의기구인 한국의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 그리고 일본의 일본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간의 정례적인 회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회의의 정례적인 3국간의 만남으로 청소년 국제 교류에 대한 3국 책임자간의 대화를 통해 보다 발전 지향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양자 간의 협의와 대화의 시대가 아닌 다자간의 시대이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자국에서 원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3국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성사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범사회적으로나 청소년분야에 3국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서 3국간 NGO 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3국청소년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중앙차원이 아닌 각 지방이나 개별단체 차원의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적 협조 등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과 외부와의 연계에 있어서 중앙에서 지원한다면 3국간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활성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많은 국제교류행사를 추진해 왔지만 이에 걸맞은 점검과 평가는 매우 미진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센터를 설치운영이 시급하다. 이 기구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한·중·일 간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이 외국과의 청소년교류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역부족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사업 초기에 외국기관과의 접근방법이나 대화방법 등이 매우 미숙하며, 숙련된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청소년교류센터에서 이들 우리나라 청소년 NGO 단체들이 교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이를 지원하고 초기단계에는 직접 추진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NGO에 이관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가 NGO들의 자발적인 청소년교류 사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영세적인 운영과 국제교류사업의 경험이 미비한 대부분의 청소년관련 NGO들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보여 진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운영중인 국제청소년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제청소년센터의 본래 설립취지가 우리나라 청소년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정부 간 국제교류 사업을 점차 NGO에게 이관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3) 한·중·일 청소년 NGO 간의 교류사례

#### ①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의 한중일청소년포럼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간의 청소년행사로 NGO 청소년단체 중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MRA/IC)에서 추진중인 ‘동북아(한중일)청소년포럼’의 경우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NGO 단체 간의 청소년교류 행사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행사가 올해로 3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포럼이라는 토론활동 취지를 살려 초빙강사들에 대한 이력과 인지도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초빙강사들의 면면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국내 초빙강사의 경우 과거 총리를 지낸 중량급 인사들과 각급 대학교 총장 등을 초청하고 있으며, 외국의 초빙강사들 또한 일본 전경련 전회장 등의 중량급 인사를 초빙하고 있어 행사의 중량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참석한 청소년들의 행사참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중·일 참가청소년들 또한 3국의 명문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행사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내에 고급행사라는 브랜드 이미지 각인과 함께 행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초빙강사와 국내외 참가자 확보는 국제적 운동으로서 세계도덕재무장운동이 중국과 일본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교류인원 인원수 또한 70명 내외로 소집단화 함으로써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유도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청소년단체로서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도덕재무장 한국본부의 동북아(한중일)청소년 포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차별화된 국내외 강사선택과 백화점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닌 토론과 강의를 중심으로 한 포럼이라는 형식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둘째로는 행사 참가자들을 소수정예화 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함으로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

며, 셋째로는 초청대상국의 조직을 활용한 공조 체제 확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 행사에 대한 인지도가 한·중·일 국내에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행사의 인지도는 상승하고 이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산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우수 교류활동으로 인정받아 일부 사업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도덕재무장 한국본부에서는 한·중·일 3국 기업들의 공동협력사업 추진과 같은 방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② 한·중 미래숲 교류활동

현재 한·중·일 NGO간의 청소년교류는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각 교류 프로그램들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성과도 미흡한 형편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시기적인 이슈나 사회적 관심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 중 사단법인 ‘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미래숲교류활동’은 그 내용이나 활동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황사문제와 같은 동북아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청소년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 및 이해를 통하여 건전하고 진실한 우의를 다지는 것을 기초로 긴밀한 양국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한·중 양국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더불어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제공된 기회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활동이다. 이 사업의 처음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많은 발전을 보

았으나 오히려 작금의 한·중간의 사업이 더욱 활발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중국 경제문화 대학생 모임을 결성하여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계 리더십 캠프를 상해, 북경, 내몽고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의 후속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밖에도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어 능력, 리더십 배양활동 등 다양한 한·중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중국통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호증진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한·중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 사업과 한·중 학술교류 및 학업정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학습 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대학생 주체 환경 캠프를 운영하면서 대 중국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 측의 카운터파트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내용과 계획에 따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접촉단체로 중국의 청소년관련 활동 및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주 대화상대로 하는 동시에, 공청단, 중국과학기술원, 국가임업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칭화대학교, 북경시수도정신문명사무소, 청년궁, 상해교통대학교, 칭화과기원, 절강대학교, 교육위원회, 섬서성정부, 상해위육중학 등으로 교류단체를 다양화 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한중청소년 간의 교류활동의 홍보를 위해 CCTV(중앙방송국), BTV(북경방송국), 인민일보, 신화사 통신, 중앙민족보, 북경신보 등의 언론기관과 제휴하고 있으며, 중국사회내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사회기관인 중국녹화기금회, 북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중한교류협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백화점식의 천편일률적인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영역화를 통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환경 분야로서 황사 및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우의림 조성 활동과 청소년 환경 세미나 개최가 있으며 문화축제활동분야로는

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행사가 있다. 그밖에도 이공계 학교재학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한중 이공계청소년교류 행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중 양국 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녹색사절단을 구성하여 한·중 양국 어린이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 한국과 중국의 연한인 서해오염에 대한 피해를 양국에 알리고자 서해관련 교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한중문화청소년미래센터’의 적극적이고 전문화된 활동은 그 동안 미래의 지도자가 될 양국 청년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환경과 산림 분야 관련 문제에 대한 공동의 토의를 통한 의식 공감 및 동반자적 관계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동북아라는 거시적 안목을 가진 세계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비정치성을 띤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호공감대를 형성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교류활동이다.

## 다. 향후 전망

현재 동북아 역내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협력의 아름다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긴 역사과정 속에서 생겨난 정치적,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골 또한 매우 깊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사적으로 그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협력체계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있어서 지난 반세기동안 실질적인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상호관련성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역사적인 이유로 그동안 교류와 협력이 거의 중단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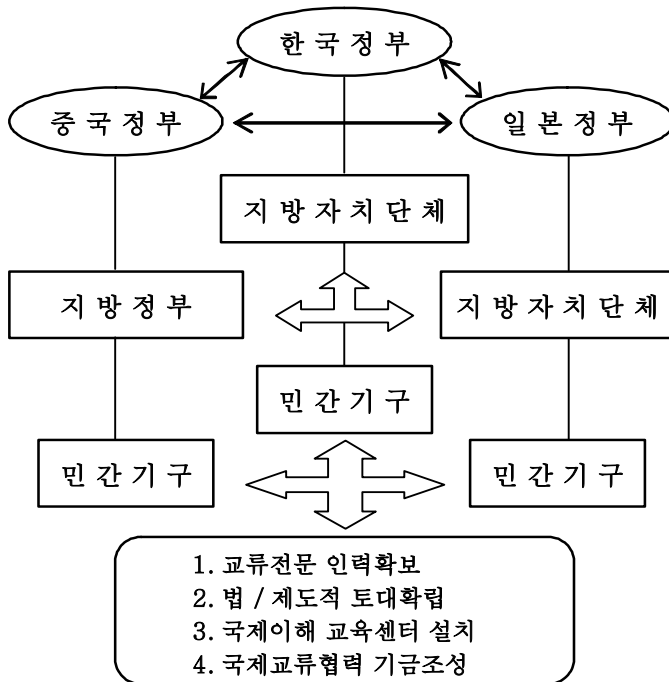
그러나 90년대부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많



은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교류는 정부와 기업, 청소년단체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은 <그림Ⅲ-3>과 같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청소년 국제교류전문 인력 확보, 법/제도적 정비, 국제이해센터 건립과 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에 붙고 있는 한류 열풍이 지속된다면 이를 기폭제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그림Ⅲ-3>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 모형



# IV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sup>6</sup>

---

<sup>6</sup> 이정주(대구대학교 자치단체국제교류연구소 소장)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임.

## 1.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실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또한 양 지역의 실질적인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3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55개 기초자치단체가 외국의 47개국의 134개 광역자치단체, 317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전체 자매결연 지역의 64%가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부진하고, 교류영역 또한 정치행정과 지역경제통상영역에 치우쳐 있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 중 청소년의 경우 유학이나 관광 등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국가 간의 교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및 국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화에 부합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기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정책적 비전하에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춘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차원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여러 부처에서 일회적이고 방문위주의 이벤트성 교류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를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교류활동을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교류활동을 국제청소년교류활동, 교포청소년교류활동, 남북청소년교류활동, 그리고 국내청소년교류활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사후 관리에 관한 시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청소년교류는 정부차원의 국제교류가 가지는 정치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또래의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개방된 사고로 자신의 조국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으로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 지방자치단체 국제청소년교류의 추진현황

### 가. 전문 인력 현황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으로 여러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격체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을 갖춘 청소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청소년관련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청소년기본법 제3, 21, 22 조), 이와 같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각각 1993년과 200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자로 양성해 오고 있다.

2004년말 현재 양성된 청소년지도사는 11,286명이며 시설에 배치된 인원은 8,000~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배치된 시설은 국립시설(중앙 및 평창 청소년수련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청소년시설(655개), 청소년단체(200여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중앙센터 및 16개 시·도 센터) 등 각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단체 및 시설 운영, 청소년 관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청소년 지도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관련 분야 직업분류가 청소년범죄학자 11,321명, 청소년상담원 27,111명, 그리고 청소년학 교수 15,101명 등 3개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활동의 실제 현장인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청소년지원기구 등에서 청소년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사)가 누락되어 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업분류가 필요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청소년기본법 제25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 지도자 등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6, 27조).

## 나. 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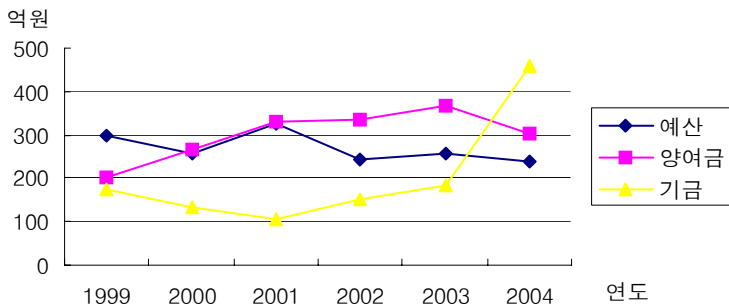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분야 재정투자는 1999년 675억원에서 04년 997억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하였다.

〈표Ⅳ-1〉 청소년분야 재정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계	675	658	761	729	806	997	9.6
예 산	297	259	325	241	258	237	△4.0
양여금	204	265	329	337	366	302	9.6
기 금	174	134	107	151	182	458	32.7

〈그림Ⅳ-1〉 청소년분야 재정투자 현황



청소년육성사업의 재정투자 방향은 건강한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 생활권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자질과 능력 함양에 두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강화와 청소년지도자 양성 확대 및 자질을 함양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리더십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다.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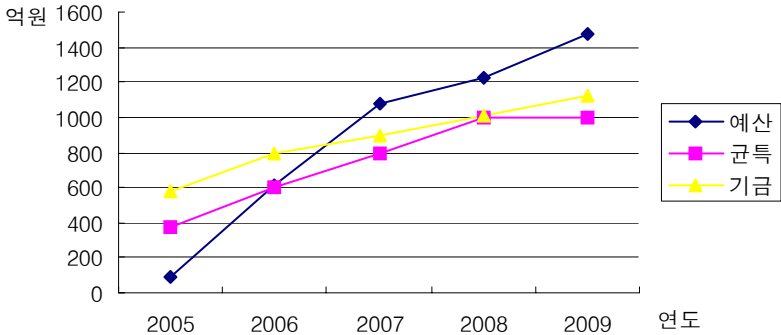
재정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청소년 인권신장 및 참여 증대, 청소년단체 및 문화활동 지원, 다양한 청소년 및 국제교류, 청소년복지 증진 등으로 두고 있다.

〈표Ⅳ-2〉 청소년육성 분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연도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계	1,052	2,008	2,770	3,230	3,599	
(증가율)		(90)	(37)	(16)	(11)	(60.5)
예 산	92	610	1,076	1,224	1,476	
(증가율)		(563)	(76)	(13)	(20)	(376.1)
균 특	376	600	800	1,000	1,000	
(증가율)		(59)	(33)	(25)	(-)	(41.5)
기 금	584	798	894	1,006	1,123	
(증가율)		(36)	(12)	(12)	(11)	(23.1)

〈그림Ⅳ-2〉 청소년육성 분야 투자계획



## 라. 제도적 현황

우리나라의 국제청소년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추진주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활동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교류가 국제청소년교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청소년교류는 그 추진주체와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과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법 중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육성과 국제청소년교류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육성이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면, 청소년교류는 이러한 청소년육성의 이념과 목적을 완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아울러 국제청소년교류의 유형에는 지역 간 청소년교류, 남북간 청소년교류, 그리고 국가 간(국제)청소년교류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교류의 진흥과 지원의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청소년교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소년관련법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Ⅳ-3〉 분야별 국제청소년교류의 제도적 특성

구 분	법적 근거	정부관련부서	교류내용과 특징	관련기관
청소년 육 및 국제교류 활동지 원 분 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보호법 제1,2,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5,53-59조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지원 ·청소년의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육성정책 수립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 교 육 분 야	·교육기본법 제29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 정보화국 국제교육협력과	·국제인으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국제화 교육 ·외국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 시책 강구	·시·도 교육청 ·국제교육진흥원
친 선 우 호 및 교 류 협 력 분 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재외동포재단법 제1,7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	외교통상부 문 화외교국 홍보 과, 문화협력과	·국제우호친선 ·재외동포활동지원 ·국제교류목적의 해외지원사업수행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자 치 행 정 분 야	·지방자치법 제35조, 시행령15조	행정자치부 지 방자치국 자치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국제교류협력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 박진규(2004) 재구성.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171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6개, 기초 155개)가 외국의 451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34개, 기초 317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79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의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7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9개, 기초 55개)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전남과 경북이 각각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 지방자치단체별 자매결연 체결 현황  
(2005년 현재)

구 분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수			외국 자매도시 수		
	계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171	16	155	451	134	317
서울시	26	1	25	74	19	55
부산시	11	1	10	27	16	11
대구시	4	1	3	11	8	3
인천시	5	1	4	13	9	4
광주시	4	1	3	8	5	3
대전시	4	1	3	13	9	4
울산시	1	1	-	8	8	-
경기도	27	1	26	79	14	65
강원도	13	1	12	33	5	28
총 북	8	1	7	15	5	10
총 남	13	1	12	29	6	23
전 북	9	1	8	21	4	17
전 남	14	1	13	23	3	20
경 북	14	1	13	41	9	32
경 남	13	1	12	42	10	32
제 주	5	1	4	14	4	10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5).

## 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 현황

〈표Ⅳ-5〉 2005년도 자치단체 국제청소년교류 현황

(단위: 천 원)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내역
		계	국고(원)	지방비	기타	
계		1,536,990	4억	1,062,970	74,020	
서울시	자치단체간 청소년 우호교류사업	200,000	-	200,000	-	청소년교류
부산시	한·일, 한·중, 한·러 청소년국제교류	24,400	-	24,400	-	해외교류사업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연합 청소년 캠프	10,000	-	10,000	-	해외교류사업비
대구시	청소년 해외독립 유적지탐험지원	20,000	-	20,000	-	현장체험
	제39회 세계 어린이올림픽 대회 참가	20,000	-	20,000	-	국제대회 참가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30,250	-	30,250	-	홈스테이, 교류행사, 문화탐방·체험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참가지원	20,000	-	20,000	-	개역식, 축하공연 등
인천시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20,000	-	20,000	-	중국(천진시, 일본(키타큐슈시))
대전시	서북미 교포 청소년 방문	2,500	-	2,500	-	방문(15명)
	일본 교포 청소년 방문	2,500	-	2,500	-	방문(20명)
	제25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9,000	-	9,000	-	보조금지원
충북	청소년 국제교류	20,000	-	20,000	-	-일본 야마시현 -중국 흑룡강성
	청소년 어학연수	10,000	-	10,000	-	중국 흑룡강성 소재지 대학
	한국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참가	20,000	-	20,000	-	전북 무주 잼버리장
충남	청소년과 국제교류	34,000	-	34,000	-	일·중·남호주 120명
	청소년 백제역사탐방	20,000	-	20,000	-	일본(40명)
	대학생 해외체험연수	79,020	-	60,000	19,020	10팀, 20명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5,000	-	5,000	-	
전남	제6회여수국제청소년 축제	800,000	4억	400,000	-	경연, 체험행사 등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	34,000	-	34,000	-	홈스테이, 견학, 탐방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	14,000	-	14,000	-	문화유적지탐방, 프로그램 참여
경북	청소년상담원 해외연수	20,000	-	20,000	-	선진외국 청소년상담기법도입
	제9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65,000	-	10,000	55,000	스카우트 활동
경남	청소년국제교류	50,000	-	50,000	-	-일본/중국/러시아
제주	청소년 국제교류	7,320	-	7,320	-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청소년 교류

자료: 문화관광부(2005).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제 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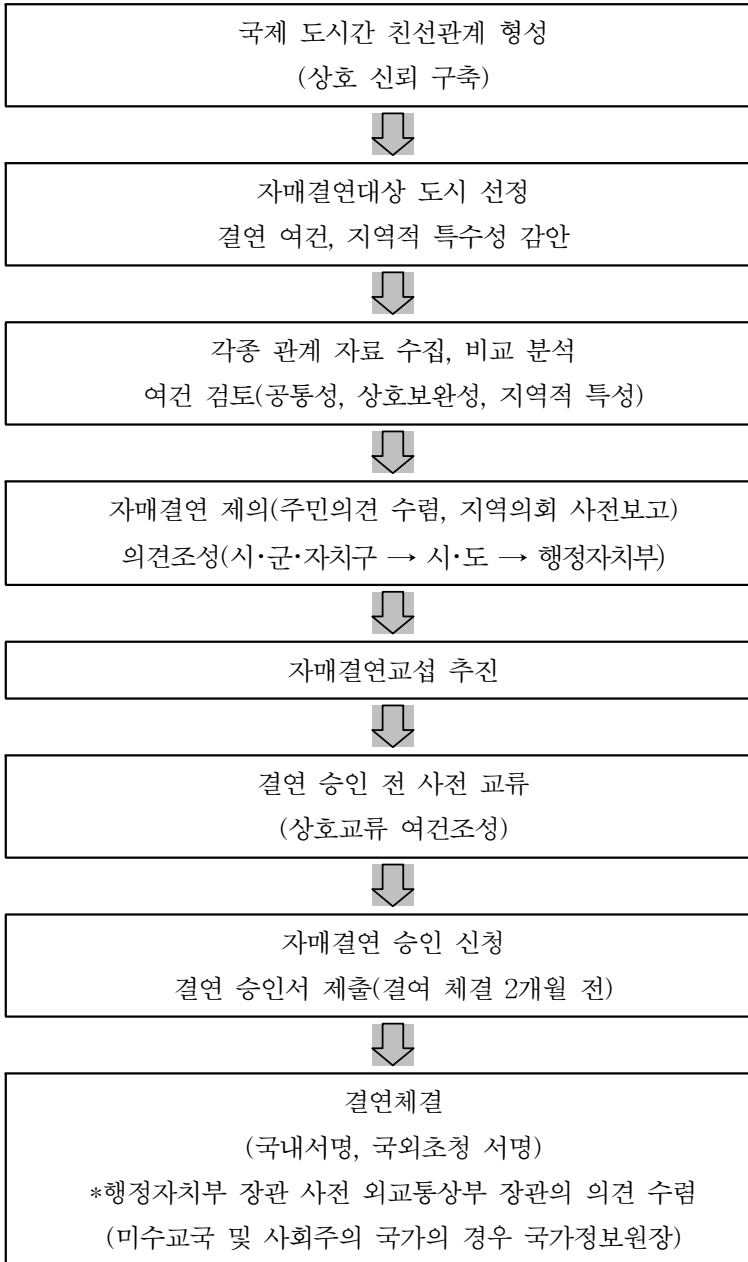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국제청소년교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방문, 국제대회 참가, 체험연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시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청소년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편 광역시 중 광주시와 울산시는 국제청소년교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전북이 국제청소년교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광역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36,99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국고 400,000천원, 지방비 1,062,970천원, 기타 74,020천원 등으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200,000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구시 90,250천원, 부산시 34,400천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경우에는 전남이 848,000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충남 138,020천원, 경북 85,000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 3.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체계 확립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분권화, 즉 기능 및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독자적인 국제교류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자치권의 보장이 국제교류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 기업이나 자본을 유치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음은 물론, 국제교류 추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자율적으로 동원·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다.

〈그림Ⅳ-3〉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절차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림Ⅳ-3>에서 도식된 바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교섭을 추진하기 전에 상급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와 의견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결연 체결 전에 행정자치부에 결연 승인 신청을 하여 자매결연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자매결연 승인시 외교통상부장관(미수교국 및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절한 관여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러한 관심과 관여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 통제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제위주의 관여는 시행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만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교류가 높은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국제교류가 갖는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 주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큰 고객 집단이 존재하거나 단기간에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미미한 상태이다.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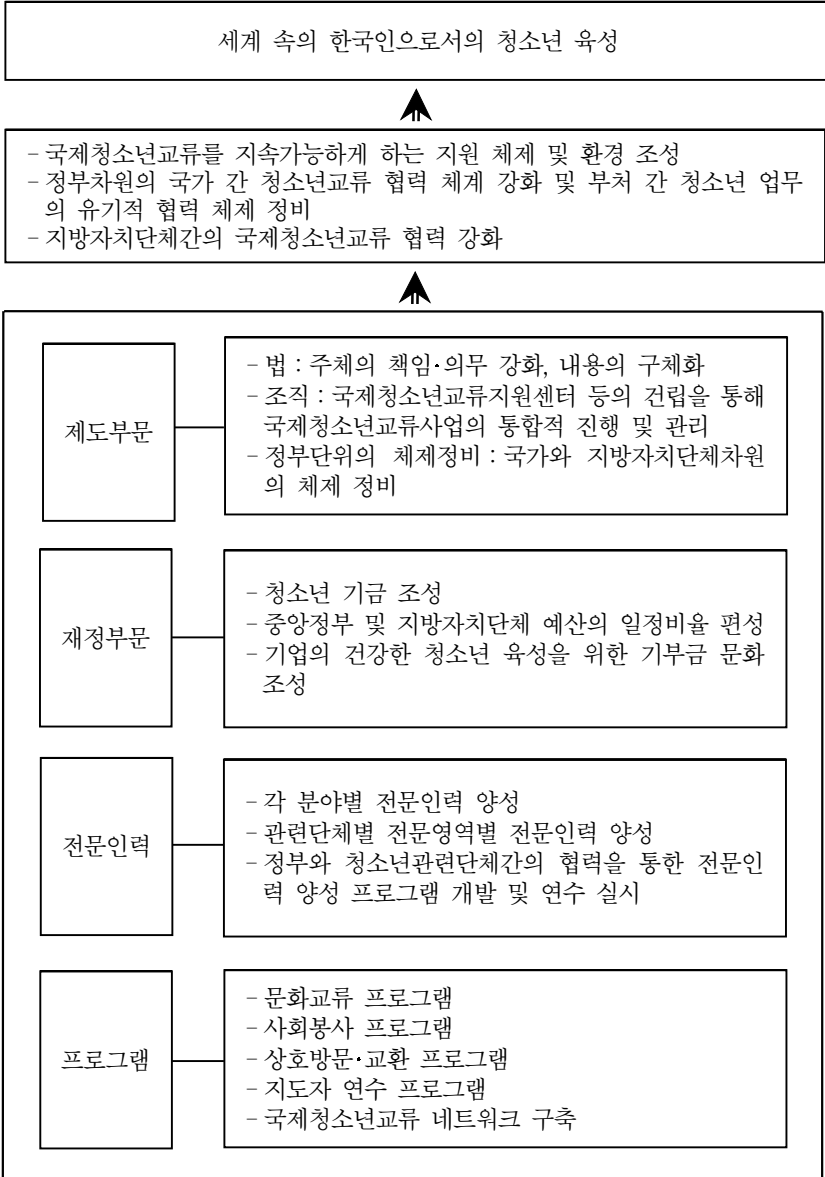
지 않음은 물론,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방향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의 결여로 기대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고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주요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를 비롯한 중앙정부 지도자들이 국제교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지니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교류는 그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확한 수혜자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고객집단이 큰 정책적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분권화시대의 중심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청소년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국제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와 국제청소년교류의 현황분석과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그림Ⅳ-4>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바람직한 청소년교류협력 모형을 비전과 추진방안, 그리고 부분별 실천전략으로 구분하여 도식화 하였다.

〈그림Ⅳ-4〉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 추진모형





##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와 네트워크 구축방안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프라 형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실현가능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국제교류협력 및 청소년교류협력 의의, 필요성 및 특징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한 지역의 사례를 조사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해 실행하여야 할 정책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교류협력의 사례

#### (1) 부천시 사례

2005년 8월 부천 가와사키 고등학교 교류회는 한국청소년 30명과 일본 청소년 21명 등 51명 참가한 토론회를 부천시에서 개최했다. 이 교류회는 11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가와사키시 청소년이 부천시를 방문하고 겨울에는 부천시청소년이 가와사키시를 방문해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21세기 새로운 동반자로서의 관계구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기 위해 경복궁, 서대문형무소,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하는 한편, 한국전쟁, 독도, 남북협력 등을 주제로 양국의 청소년이 자신들의 생각을 직접 발표하는 포럼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교류회의 특징은 양시의 고등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어 2000년 만들어져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련시설에서 주관이 되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

민으로서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조성하고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 의식, 행동을 함양시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2) 안양시 사례

안양시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기 이전에는 시의 국제교류 과에서 직접 청소년교류를 준비하고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1999년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래 국제교류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교류와 관련한 사업을 위탁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자매도시인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안양시에서의 일본 청소년교류는 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스, 역사교과서 왜곡파동, 독도문제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중단되는 등 교류 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교류의 목적을 보면 부천시와 유사하지만 학교단위의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 단위의 사업으로 양국 양시의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수내용으로는 (1) 민박가정과의 생활로 상대국의 생활 문화 습득, (2) 관내 및 인근지역 문화유적지 견학, (3) 시청, 의회, 청소년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방문 등 주로 문화이해를 바탕으로 한 홈스테이를 하고 있으며, 연수참가에 대한 비용부담은 참가자가 (1) 고마끼 연수단에 조·식제공, 차량지원, 방한기념품, (2) 방일연수 시 항공요금, 방일기념품, 여권, 비자발급비 등을 부담하고 나머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류사업 목적은 (1) 초등학교 교류를 통해 양도시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 도모, (2) 한국인의 생활모습을 일본학생에 소개, (3) 양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의 다양성을 체험, (4) 청소년의 국제화 감각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국제화,

세계화 감각을 획득하고, 한국의 생활상과 고유의 문화관습을 일본에 소개, 일본인의 가치체계, 생활상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양국 청소년의 친목과 우정 도모함을 기대효과로 하여 실시한다. 특이한 것은 양국의 청소년들이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시 측에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상호교류 연수방침을 살펴보면, 안양시-고마끼시 상호평등 호혜원칙, 민박교류연수, 항공료 등 경비는 연수자 부담, 연수학생(민박가정)은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학교에 다닐 것 등이다.

## 나.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약 1/3이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 뒤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성과 지속성 등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재정지원은 얼마나 되는가?

둘째, 프로그램 수행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프로그램의 양과 질은 어떠한가?

넷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가?

다섯째, 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가?

여섯째, 교류 상대국은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가?

일곱째, 참여대상은 얼마나 다양하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여덟째, 교류사업의 결과가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아홉째,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사후 관리 및 네트워크의 형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열째, 사업(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열한 번째, 외부기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얼마나 활성화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 사업을 경제·통상교류 등의 부차적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위 청소년교류 사업은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상대국의 요청을 계기로, ‘구색 맞추기’식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측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식전환이 필요로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이며 이 외에는 민간단체나 교육기관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30% 가량이며 자치단체의 보조에 민간단체나 참여자 부담이 합쳐지는 경우가 30% 가량으로 국제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치단체의 60%만이 지방비에서 청소년교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같이 미비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과 기본전략을 <표Ⅳ-6>와 같이 제시해 보았다.

〈표Ⅳ-6〉 국제협력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확립방안

비 전	동북아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목 적	국가에 대한 기초이해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지원하는 체계를 통한 교류기반 확립	
내 용	상호호혜원칙	문화교류	개인 간 교류	단체연대
기본전략	행정지원체계 확립		민간참여의 활성화	
기본전략	조직적 지원 담당부서 지정 친선협회 운영 활성화 지원	재정적 지원 교류 예산확보 단체장 관심	국제민간 단체간 자매결연사업 학교 간 자매 결연사업	민박제공 등 기본 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구축 민간외교 활성화

국제교류사업 참여집단은 여전히 초·중학생 혹은 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집단의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청소년 및 농어촌 지역의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근로청소년 및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직업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국가 전력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한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내용으로는 견학·시찰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 스포츠·캠프나 문화활동, 작품교류 활동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여 활동내용이 직접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교류사업 실시 횟수는 연회차가 보편적이다. 행사성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운영의 조직성이나 체계성, 지속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국제청소년교류 사업 추진상의 애로점으로는 재정부담, 언어문제, 인력 등 지원체제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국제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지 못한 자치단체의 경우 이외에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는 단순한 견학, 방문활동보다 현지인과의 인적 접촉을 통해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모여 공동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국제교류 거점시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실시되는 정부 간 교류프로그램이나 일본의 방한수학여행단은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수용태세가 갖추어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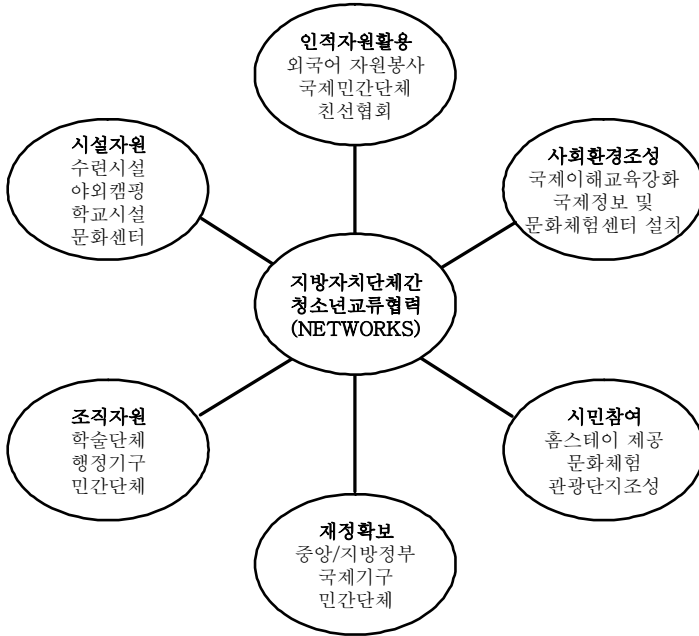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세계화 추세로 외국인과의 교류, 국제교류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내 인이 외국방문이라는 방식 외에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제교류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제교류를 확산시키고 국내 청소년과 외국인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제교류 거점시설을 시범·지정하여 운영한다.

수련시설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외국인, 외국음식, 외국문화

이해와 외국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프로그램 기획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다 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대중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익성이 낮아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련시설에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활발해지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 지정 국제청소년교류 시범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며 이들 시설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와 프로그램 인력(프로그램 진행시 요청되는 비상근 외국인 인력)을 지원해 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교류협력의 다면적인 접근모형을 <그림Ⅳ-5>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Ⅳ-5>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제청소년교류협력 모형



## 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일본은 ‘세계대전의 과오에 대한 국가이미지 쇄신과 복구후의 일본발전상 소개’라는 외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일본청소년들의 ‘교류 활동을 통한 덕목함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찍부터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선박을 마련하고 순항하면서 방문국과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후조직을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청소년교류활동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참여한 청소년들이 모두가 친구가 되고 국가별 창구가 되어 국가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sup>7</sup>

정부주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앞장서서 챙겨나가는 비공식조직과 반관반민 조직을 설립하여 보다 민간적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들의 지방자치단체별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 활동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주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은 매우 미진하다. 이것은 국제청소년교류를 다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주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sup>7</sup> 한국의 삼성엔지니어링은 거의 확보한 베트남 원유정제시설 프로젝트(7억 400만\$)를 일본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코오롱건설은 하노이 상수도 프로젝트를 일본 에바라사(社)에 빼앗겼다. (조선일보 11월 19일자 ‘니에 눈물 삼킨 한국기업’이라는 제목의 ‘기자수첩’ 기사)  
물론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난 사태이지만,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국가지도자가 되고, 이들 간의 유대는 상호이익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 ■ 청소년교류활동의 발전방안 [1]

**지방자치단체주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할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구설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재단법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이 기구는 서울에 위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일괄적 기획과 지원만을 담당하고 청소년교류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과 국제청소년교류활동 관련 사업도 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하여 기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방에 지부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호협력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다.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관리(aftercare)를 담당할 범국가적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갖추면 된다. 이것이 일본의 경우와 같다.

## ■ 청소년교류활동의 발전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부서에 청소년교류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교류의 진흥이 국가부흥의 기초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이다. 물적교류도 중요하지만 인적교류 특히 청소년교류는 바로 국제교류의 핵심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부서 규모와 수준으로는 국제청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시(市)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년교류과 또는 청소년교류계를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자매결연 도시의 확대관리, 사후관리 등 모든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업무를 관장하면서, 위에서 제시한 민간기구와의 체계적인 협력업무를 수행한다.

#### ■ 청소년교류활동의 발전방안 [3]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하고 거기에 청소년교류활동이 포함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청소년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전반적인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청소년교류활동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일의 주 업무는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이겠지만, 그 중 청소년프로그램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교류과 또는 청소년교류계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교류과 또는 청소년교류계가 설치되면, 자매결연을 청소년교류활동의 목적만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V

## 국가 간 청소년국제교류 법·제도 정비방안<sup>8</sup>

---

<sup>8</sup> 최금해(연세대학교 법학박사)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혁명의 시대는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과거 통신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지역문화가 변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위성통신이나 인터넷의 보급 등 정보통신 체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세계는 외부의 영향을 급속히 받아들이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적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국제교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중심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성공적인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한·일·중 세 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의 역사와 추진체계를 포함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법 및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1. 청소년국제교류의 역사비교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세계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종, 성, 종교, 문화권 간의 상호협력의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염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국제이해 교육의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와 협력 보다 목표에 접근하는데 효과적이라는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정신과 요구가 결집된 선언 또는 협약으로는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84. 12. 10

유엔총회 결의안 217A(III)에 따라 채택)와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 그리고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1965. 12. 7 유엔총회에서 채택)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는 18차 총회에서 국제 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를 채택하였고, 이 권고안은 지금도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 공동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를 위한 세계교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한·일·중 세 나라 청소년 국제교류의 역사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가. 한국

한국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문헌상에 언급된 것은 1919년 3월 10일 한국남녀소년단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파리강화회의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기록과 1928년 10월 2일 “세계아동예술전람회”를 개장하였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몇몇 한국스카우트연맹, 대한 YWCA연합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의 청소년단체(기관)에서 실시하여 온 국제교류가 국가차원의 전략분야로 본격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었다. 1990년대는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배경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실행규모는 외환위기를 맞이하였던 1997년과 1998년을 저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다.

## 나. 일본

일본 내각부가 청소년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1959년 당시 황태자의 결혼 기념으로 내각부 총리대신이 발의에 의해 “청소년해외파견”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메이지 백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배” 사업이 개시되었다. “청년해외파견”사업과 “청년의 배”사업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력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곤란했던 시기에 정부가 사업 실시의 주체가 되어 일본 청소년들을 해외에 파견한 사업으로, 그 당시 일본 국내의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 사업으로 1987년까지 실시되었다.

1974년 일본은 일본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의 공동 성명에 기초하여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를 발족하였고, 1985년부터 브루나이가 추가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1979년 일본은 중국과의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중국 청년 친선 교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일본 청년 친선 교류”사업을 실시하였다. 1985년 유엔에서 정한 국제 청년의 해를 기념하여,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내각부에서는 1985년부터 국제 청년의 해의 취지와 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 청년의 마을”사업을 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의 증대, 사회 각 분야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하여 내각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우선 1988년 “청년의 배” 사업을 개선하여, 종래의 일본 청소년들 중심의 교류 내용을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1994년에는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국제청년육성교류”사업을 발족하였다. 이 사업은 종래의 “청년해외파견”사업 및 “해외 청년 초청”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 다. 중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즉, 194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청소년 국제교류는 1979년 중·일 청소년 친선교류를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979년 일·중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의 공동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파견 및 초청활동을 해왔다. 그 후, 1995년 한·중 양국 정부 간의 국제교류를 하면서 1998년 10월 12일 한·중 양국 외교부장관이 청소년교류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수교 이후 실시되어 온 양국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였다. 양국은 동 양해각서에 따라 과거 20명씩 교환해온 청소년 대표단의 규모를 2001년부터는 4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왔으며, 2002년 한·중 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한·중 청소년 공무원 대표단, 청소년 및 교사 교류 등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 2.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체계 비교

### 가. 개념 및 내용 비교

청소년 국제교류의 정의는 세 나라가 비슷하다. 즉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의 간 문화적 이해,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 평화적 공동체 삶의 창조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외국이나 국내의 지역 간 상호 직접적 방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과 관계들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의 주체, 목적, 장소, 방법, 기간, 내용, 형태, 성격 등이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면, 주체로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지만 관련 지도자, 전문가, 정책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추진 목적은 간 문화적 이해와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와 평화적 공동체 삶의 창조이며, 장소는 국내·외 모두 포함된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방적인 방문이 아니고 방문과 초청의 상호 교류 형태로 명시하면서 불특정의 일정 기간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차이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유럽, 서구 중심의 국제교류, 즉 “탈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국제교류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류 증대와 일본 이해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제교류는 “지역의 국제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국제교류는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정부, 반(半)정부와 민간의 다방면의 국제교류를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각종 전파수단을 이용하여 국의 발전과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세계에 중국을 알린다. 또한 중국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세계의 선진적인 과학기술 지식과 관리 경험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력을 제고시켜 중국만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회로 이용하기도 한다.

## 나. 추진체계 비교

한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들을 살펴보면, 주된 정부기관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으며, 청소년 정책단 교류문화팀에서 청소년교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청소년 선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 청소년 기구와의 협력,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서의 파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교포 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 등 청소년 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각부가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 청소년 단체협의회는 국제교류 사업으로서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의 회원으로서 UN등 각종 국제기구 개최, 세계 각국과의 정기적, 비정기적인 청소년 지도자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각부의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은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가 실무적인 업무를 위탁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류 참가자의 사후 관리 업무는 일본 청소년 국제교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아래에서 세 나라의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한국

한국 외교통상부는 문화외교국의 홍보과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외교관계를 활용하여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업무에 대한 협조·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교류를 지원한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국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의 3개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한·일

- ① 1972년부터 한·일 대학생교류 사업에 따라 각 20명 대학생대표단이 한·일 양국을 상호 방문하고 있다.
- ② 2002년 7월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정신을 계승하여 “한·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 ③ 2003년부터 매년마다 스포츠 및 청소년 교류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기로 합의 하였다.

○ 한·중

- ① 1998년 10월 12일 한·중 양국 외교장관이 청소년교류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양국 간의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② 양해각서에 따라 2001년부터 과거 20명씩 교환해온 규모를 40명으로 확대했다.
- ③ 2002년 한·중 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한·중 청년공무원 대표단, 청소년 및 교사교류 등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④ 2004년 중국청년대표단을 3년간 500명씩 초청하는 협정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제교육 협력 담당관과 재외동포 교육 담당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육 협력 담당관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교육 분야 대외개방 총괄 및 국외 교육 관련 정보·자료수집, 교육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그리고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육 담당관에서는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국내유학 외국인의 관리, 정부 초청 장학생사업, 외국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지원, 귀국자녀 교육지원,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지원,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해외주재 교육관 및 공무원의 국외 파견 지원 등의 일을 수행한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협력업무추진에 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화를 이끌 인재 육성, 해외 정보 관리 및 자료 제공, 국제교류 지원 사업, 국제 통상 업무 지원, 해외 사무소 및 해외 명예 주재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 일본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각부가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각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가 실무적인 업무를 위탁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류 참가자의 사후 관리 업무는 일본청소년국제교류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화,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과, 일본 청소년들의 해외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기구가 정부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와 일본청소년국제교류기구(IYEO)는 1994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내각부 등이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협력체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아이디어 개발과 정보제공 그리고 지원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이 풍부한 청소년을 육성하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추진해 온 단체이다.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위탁받는 형식으로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와 기타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청소년국제교류기구(IYEO)는 3종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전국에 약 1만4천 명에 달한다. 본부는 동경에 있으며, 47개 도도부현에 자원봉사자에 의한 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조직과도 긴밀한 연계를 이루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IYEO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지며, 활동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 상호이해와 국제 우호 친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1972년 일본 외무성소관 특수법인으로 설

립되었다. 일본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첫 공적 전문기관으로서 학술, 일본연구에서 일본어 교육, 예술, 출판, 영상매체, 스포츠,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기본으로 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협력기구는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촉진을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협력기구의 주된 사업으로는 외국인의 일본 연수 사업,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일본인 전문가 파견사업, 무상자금협력, 그리고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다. 또한 기술협력을 위한 인재양성 및 확보 사업, 긴급원조를 위한 물자 및 장비의 비축과 제공, 국제긴급원조대 파견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인재 파견 사업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년퇴직한 노인들까지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 (3) 중 국

YFU(Youth Understanding International Exchange)는 1951년 미국 국무성의 후원아래 창설된 비영리 민간교류 기관으로서 현재 53년 역사를 가진 국제교류 기관이다. 중국의 YFU-Greater China는 홍콩에서 등록하여 전문적으로 국제교류 학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본부는 북경에 있으며, 광주, 심천, 상해, 광서와 대만 등 지역에 협력기관을 두고 있다.

송경령기금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초대수석 손문(孫文)의 부인 송경령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하게 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소년·아동교육, 과학기술과 복리사업, 소년·아동 심신건강의 발전 촉진과 국제교류 활성화 그리고 세계평화의 유지이다. 한국 국제 청소년 교류 주관 단체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중국 송경령기금회와 정기 교류협정을 체결한 재단이며, 이 재단에서는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 한·중 간의 청소년 교류 사업(중국청소년 방한)을 1월 8일

부터 17일까지 시행하였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한·중 수교를 축하하면서 양국 간 청소년 교류를 제의하였고, 1993년부터 매년마다 20명씩 10일 간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은 청소년들이 21세기 선진 통일 창조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실상과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청소년 국제교류의 기반조성과 기회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정한 주요 사업의 방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 체결하고 있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협정 또는 약정의 발전 있는 내실을 기하는 한편, 그 폭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둘째, 민간 및 단체 교류의 확대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 이외에 민간에서 추진하는 우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신규 사업의 개발과 시행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교류의 세계화 추진이다. 한민족의 얼을 지닌 세계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효사상 비교를 위한 국제캠프를 개최하고, 청소년 외국어경연대회·선진영농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아시아청소년회의총회(AYC)·세계청소년대표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우수 교류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다. 현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세계화에 걸맞는 청소년 국제교류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세계 청소년 정보망 구축이다. 세계 각국과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는 세계 청소년 정보망(체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의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여섯째,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추구한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대상국 선정에 있어 국가 정책이나 외교상 관계 개선이 요구되는 국가, 자원 개발과 인력창출 등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이 요망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참여할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연령·학력·어학 등 각종 능력·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 3. 청소년국제교류 법·제도 비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들을 21세기 선진조국 창조를 주도할 국제적 능력과 덕성을 가진 차세대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외국과의 인적·문화적 교류활동을 계획·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그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 국제화·세계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외국과의 교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선진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세계화에 걸맞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동시에 진취적 기상과 개척정신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국제교류를 통한 국위 선양과 애국심 고취이다.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청

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우수한 문화 전통을 세계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는 동시에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과의 청소년 교류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나라를 국제 사회의 중요 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은 청소년들이 21세기 선진 통일 창조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실상과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국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의 기반 조성과 기회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중 세 나라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① 한국의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청소년들과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하면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간 청소년 국제교류”, “국제 청소년 행사 개최”,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해외연수” 등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의 교류를 다변화·다양화하여 청소년들의 시야를 확대하고 직·간접적 경험을 확대하게하며, 한정된 소수의 청소년에게 교류가 집중되지 않도록 수익자 부담을 증가시켜 다수의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 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 해외 봉사 활동을 추진 한다.



② 일본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일본 정부는 교육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과제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 개념의 4대 이념(개성, 능력, 사회성, 국제성) 중 “사회성” 및 “국제성”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갖춘 일본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중국은 광범위한 국제교류의 발전을 통하여 세계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과 관리경험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국력을 제고시켜 중국만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기회로 이용한다.

거시적 접근에서 볼 때 한국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교류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일본은 청소년 육성 추진 요망 및 청소년 육성 시책 대강에서 국제교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관련 규정이 없다.

2005년 2월 10일 새로 개정된 한국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 제3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 교류를 청소년 활동으로 개정하였는데,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일본 청소년육성추진요강 중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내용은 제3장 중점추진사항 중 제2절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의 추진을 구성하고 있는 4개 항목 중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추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4개 항목은 국제교류사업의 추진, 국제이해 교육의 충실, 시책·사업 연계의 강화, 사후 활동의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V-1〉 한·일 청소년교류 관련 법률 비교

한국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	일본 청소년육성추진요망
<p>2005년 2월부터 시행하는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에서 청소년교류를 청소년활동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p> <p>제3조(정의)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p>	<p>청소년육성추진요망 중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내용은 제3장 중점추진 사항 중 제2절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의 추진을 구성하고 있는 4개 항목 중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추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제3장 제2절의 1(국제교류사업의 추진) 청소년은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장 등에 관한 인식을 높임과 아울러 국제적인 연대감이나 협조의 정신을 몸에 익히는 기회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각 중 사업을 추진한다.</p>

또한 미시적 접근에서 볼 때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의 내용과 비슷하고, 한국(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 및 기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상륙허가 또는 해당 외국인의 취득과 관련된 체류자격 또는 그 갱신과 관련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도록 한다.

한국 국제교류재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 국제교류기금법에서의 내용과 비슷하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일본 국제교류기금)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일본)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국제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와 그 밖의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하여 양호한 국제환경의 정비 및 한국(일본)의 조화로운 대외관계의 유지,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한국 국제협력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 국제협력기구법에서의 내용과 비슷하다. 즉, 한국국제협력단법(일본 국제협력기구법)에서는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국제협력단(일본 국제협력기구)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 및 해외 인력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 연수생의 초청 및 훈련, 전문인력 파견(전문가, 의사, 태권도 등),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개발조사사업, 문자공여사업, 프로젝트사업, 민간단체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 및 법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국제합작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개강(中国教育改革和发展纲要)”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체계적인 법으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도 별로 없는 편이다.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주로 민간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 4. 청소년국제교류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가. 문제점

세 나라의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법규들을 살펴보면, 법적 내용이 너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추상적인 명시만 있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명시와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명시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경우는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법규도 조차 없는 실정이다.

법외에 제도로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실제로 국가나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 단체나 일반 청소년들 중에서 선발된 극히 소수인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

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은 10% 미만이며, 대부분 청소년들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90%가 넘는 청소년들은 국제교류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한 형편인데, 과연 이러한 국제교류 정책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의 정보가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과 만나는 기회를 갖는 등의 활동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우선해서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국제교류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교류 정보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정보나 지식이 어둡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가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청소년들에 의한 참여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국제교류의 교육이 미비하다. 청소년들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하여 대상국 언어의 사용, 각국의 지리, 문화의 이해, 국제 예절 등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교류 교육은 저학년에서부터 국제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만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국제교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어의 경우도 그 동안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오랫동안 학습되어 왔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이 일정한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각 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이들 단체 간에도 국제교류 교육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의 청소년 요구 반영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청소년 국제교류는 주로 정부의 지원 하에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교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가 대상, 교류 대상, 교류 방법, 교류 기간 등에서 청소년들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 참가 대상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에 비해 참가인원이 매우 적으며, 대상 선발에서도 외국어 구사 능력,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방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국제캠프, 외국인 민박활동, 유적지 및 자연 탐사 등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각 단체별 교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부 단체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의나 연수, 시찰 등의 형태를 주로 띠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된 행정 부처들은 청소년 국제교류의 추진과정에서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인 청소년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총괄적인 관장이 미약하다. 또한 청소년 교류 활동의 대상자로서의 청소년들의 요구나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책 및 행정지원체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국제교류를 매우 단기간으로 추진하였으며, 파견인원은 주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인원수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출국하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파견 인원은 주로 기관 간부이거나 학교,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이었고 일반 청년들이 출국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국제교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청소년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담당자가 사업을 통보 받은 후에야 임시적으로 교류인원을 선발하고 조직하여 간단한 훈련과 정치심사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견하였다.

## 나. 법·제도의 정비방안

청소년 국제교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국제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초점을 소수 중심에서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맞추고,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보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교류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국가 간의 문화권 탐방활동 등의 공동 프로그램과 지방 자치단체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해외동포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교육면에서 일본은 이미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일본 정부는 교육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과제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 개념의 4대 이념(개성, 능력, 사회성, 국제성) 중 “사회성” 및 “국제성”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갖춘 일본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노력 등도 적극 요청되고 있다. 즉, ① 국제교류 및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 ②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의 개발 및 보급, ③ 청소년 국제교류 교육의 확대, ④ 국가 간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⑤ 지방 자치단체별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성화, ⑥ 해외 동포 청소년 간의 교류 확대, ⑦ 국제교류 지원의 확대 등이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의 정비가 이루어져 구체적 시행령에서 의무·법적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와 관심의 증가와 시대적 필요성이라는 현실에 비해 국제교류에 대한 행정적 체계가 취약한 실정임을 인식하여 정부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정책

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방안의 다원화 및 정보접근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청소년 교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산뱅크제 실시를 검토와 함께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들 간의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전문영역 및 지도력에 대한 연수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이 점차 가속화 되면서 국제교류와의 협력이 증가하게 되고 청소년 국제교류는 예전의 단순화 방식에서 다면화된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내용면에서도 단순히 외국을 방문하여 배우는 것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이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제정세에 부응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는 프로젝트관리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완전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재로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법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련 법 및 제도를 빨리 갖추는 것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혁명의 시대는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과거 통신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때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지역문화가 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위성통신이나 인터넷의 보급 등 정보통신 체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세계는 외부의 영향을 급속히 받아들이며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일·중 세 국가의 청소년 국제교류체계를 <표 V-2>와 같이 요약하였다.

〈표 V-2〉 청소년 국제교류 법·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분석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919.3.10 한국남녀소년단 파리강화회의에 청원서 제출</li> <li>② 1928.10.2 세계아동예술전람회 개장</li> <li>③ 1990년대 이후 민간 청소년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제청소년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li> <li>④ 1997년과 1998년 외환위기를 저점으로 하여 다시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959 “청년해외파견” 사업 실시</li> <li>② 1962 “해외청년초청” 사업 개시</li> <li>③ 1967 “청년의 배” 사업 개시</li> <li>④ 1974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 개시</li> <li>⑤ 1979 “일본·중국청년 친선교류” 사업 개시</li> <li>⑥ 1985 “일본청소년국제교류기구” 발족</li> <li>⑦ 1987 “일본·한국 청소년 친선교류” 사업 개시, SSEAYP (The Ship for Southeast Asian Youth Program) International 설립</li> <li>⑧ 1988 제1회 SIGA (SSEAYP International General Assembly) 개최</li> <li>⑨ 1989 “세계 청년의 배” 사업 개최</li> <li>⑩ 1994 국제청소년육성교류」 사업개시 (주)청서년국제교류추진센터 설립</li> <li>⑪ 1996 SWYAA(Ship for World Youth Alumni Association) 사업 개시</li> <li>⑫ “21세기 르네상스 청소년 리더 초청” 사업 개시</li> <li>⑬ “청소년 사회활동 협력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사업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951년 미국 국무성의 후원아래 비영리 민간교류단체가 창설되었음(YFU : Youth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Exchange)</li> <li>② YFU-Greater China는 1997년 미국의 YFU와 합작을 통해 창설된 고등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임</li> <li>③ 20세기 들어 비영리 공익단체인 송경령 기금회를 통한 국가 간 유력인사 교류 및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음</li> <li>④ 1992년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한·중수교축하를 위한 양국 간 청소년교류를 제의하였으며, 1993년부터 매년 20명씩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음</li> </ul>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문화관광부</li> <li>② 한국청소년단체 협회</li> <li>③ 외교통상부</li> <li>④ 교육부</li> <li>⑤ 행정자치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와 일본 청소년국제교류기구(IYEO)</li> <li>②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li> <li>③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송경령기금회(宋慶齡基金會)</li> <li>②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li> </ul>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기본법</li> <li>② 출입국관리법</li> <li>③ 한국국제협력단법</li> <li>④ 한국국제교류재단법</li> <li>⑤ 재외동포재단법</li> <li>⑥ 교육기본법</li> <li>⑦ 청소년활동진흥법</li> <li>⑧ 학술진흥법</li> <li>⑨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육성시책대강</li> <li>② 청소년육성추진요망</li> <li>③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li> <li>④ 국제협력기구법</li> <li>⑤ 국제교류기금법</li> <li>⑥ 외국인등록법</li> <li>⑦ 국제관광진흥기구법</li> <li>⑧ 기타 관련 법령</li> </ul>	관련 법률 없음
법·제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적 내용이 너무 취약함</li> <li>② 행정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문화관광부가 총괄적인 관장이 미약함.</li> <li>③ 전문인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제교류의 방식 및 인원이 매우 제한됨</li> <li>② 규모가 매우 작음</li> <li>③ 체계성 목적 부족</li> </ul>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의 배양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도 결부된 필수적인 요소가 됨</li> <li>②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의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 해줘야함</li> </ul>	청소년 국제교류는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혁개방,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필요와 국제추세의 새로운 발전에의 적응</li> <li>② 광범위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세계의 선진적인 과학기술 지식과 관리 경험을 받아들임</li> </ul>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정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교류 관련 법·제도의 정비</li> <li>② 행정기능 및 지원 체계의 강화</li> <li>③ 청소년교류 관련 시설 및 사후관리 강화</li> <li>④ 인터넷 사이트 콘텐츠 개발 및 참가자 전산관리</li> <li>⑤ 관련단체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li> <li>⑥ 전문교류인력 양성</li> <li>⑦ 국가 간 협력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단일 패턴에서 다중 패턴으로 변화함</li> <li>② 일방에서 쌍방으로 변화함</li> <li>③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바뀜</li> <li>④ 단기배체에서 프로젝트관리로 바뀜</li> <li>⑤ 국가주도에서 시장경제 위주로 바뀜</li> </ul>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 간 정기 교류의 정착 및 활성화</li> <li>② 민간 및 단체 교류의 확대</li> <li>③ 청소년 교류의 세계화 추진</li> <li>④ 우수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li> <li>⑤ 세계청소년정보망 구축</li> <li>⑥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추구</li> </ul>		

# VI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 1. 평가체계 구성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대한 각종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논리적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틀로서 6차 원칙과 함께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목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평가의 목적은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책무성(accountability)의 실현, 기존 평가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목적이 있다(김명수, 2000). 또한 평가의 목적은 평가대상의 선정,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대상과 관련된 평가의 단위, 범위, 그리고 평가내용이다.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수행주체별 사업성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교류 유형별 프로그램내용과 운용과정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대상에 대한 설정과 함께 국제교류사업과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와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셋째, 평가주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평가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그리고 외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청소년교류를 담당하는 정부, 지방자치제,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의 경우 자체평가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평가이며, 내부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자신은 아니지만 사업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평가이며, 외부평가는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외부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이다.

넷째, 평가방법으로 평가도구와 평가시기에 관련된 사항이다. 평가도구에는 평가기준 및 이에 근거한 평가지표 등을 말한다. 평가

기준은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 대응성(responsiveness)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시기는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은 사전평가로서 교류활동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사전교육 단계에서부터 사후활동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각의 단계별로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성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목적 및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평가 시기와 평가회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 간 비교 및 환류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평가결과는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2.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선정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장점은 정부 부서가 직접 사업수행의 주체가 됨으로서 민간단체에 비해 교류 상대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주 고객인 만큼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교류 담당자에 대한 인사교체가 빈번한 정부부서가 청소년 교류사업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 정부가 다수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주도하기보다는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공익단체와 민간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국가의 공적기능과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관-민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제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조체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민 연계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부 간 청소년교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표 VI-1〉 국제청소년교류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단계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 목적의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시의성 ·사업 내용의 충실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참가자 부담 정도
	프로그램의 독창성	·프로그램의 특성화 정도 ·프로그램의 참신성
과정평가	추진과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 정도 ·시행과정의 충실성
	참가자의 의견 반영 정도	·전문가 의견 반영 정도 ·참가자 의견 수렴 정도
	관련기관·참가자 협력정도	·관련 기관간의 협조정도 ·참가자 간의 협력 정도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적정성	·예산 투입의 적정성 ·인력 투입의 적정성
결과평가	사업성과의 우수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자체평가 시행 정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투입 예산 대비 성과정도 ·예산집행의 투명성
	교류활동 결과의 파급효과	·참가자 만족도 ·기관 및 참가자에 대한 기여도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사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 간 협력사업 : 국가 간 교류사업은 아니지만 상대국과 정부차원에서 협의하여 수행하는 사업
- ② 민간위탁사업 : 정부의 목적 사업으로서 민간에 위탁되어 수행되는 사업
- ③ 국제기구 협력사업 :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나 회의에 참가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④ 민간단체 지원사업 : 민간단체의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 ⑤ 지도자교류사업 :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사업
- ⑥ 교류기반 조성사업 :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프로그램개발, 지도자 훈련, 정보망 구축 등에 지원되는 사업
- ⑦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사업 평가기준은 각국이 교류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영역이나 평가항목이 사업 수행주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사업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단계와 세부평가항목을 정리하면 <표Ⅵ-1>과 같다.

먼저 평가단계는 계획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평가단계에 따라 몇 개의 평가지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개별적인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측정항목 구성할 수 있다.



### 3. 청소년 국제교류평가지표 가중치평균 분석

#### 가. 조사과정 및 분석방법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의 문항별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현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 특·광역시와 8개도의 도청 공무원 각 5명씩 총60명, 전국의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30명, 국제청소년교류 관련 민간단체 종사자 30명, 총120명으로 청소년 지도자 그룹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미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20명으로 총 24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우편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 8월 22일에서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최종 수집된 질문지는 총 123개로서 수거비율은 51.3%였다.

각 문항별 가중치 산출 근거로는 앞선 순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순위별 등급 차는 1점으로 하여 ‘매우 높다’의 가중치는 5점, ‘약간 높다’는 4점, ‘보통’은 3점, ‘약간 낮다’는 2점, ‘매우 낮다’는 1점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문항에 대한 가중치 평균점수가 일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직업 및 소속기관과 교류활동에 참가한 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지표를 개발을 위하여 평가지표의 세부문항별 중요도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VI-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Ⅵ-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자(N)	비율(%)
계		123	100
성 별	남자	56	45.5
	여자	67	54.5
소속기관	지도자	66	53.7
	학생	57	46.3
참가경험	1~3회	90	73.2
	4회 이상	29	23.6
	결측값	4	3.3

전체 응답자는 123명이며, 성별에 따른 구분은 남자(56명, 45.5%), 여자(67명, 54.5%)이었다. 소속기관은 대학교수, 공무원, 민간단체 종사자인 지도자 집단(66명, 53.7%)과 학생(57명, 46%)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 참가 경험은 1~3회(90명, 73.2%)와 4회 이상(29명, 23.6%)으로 나타났다.

#### 다.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항목 가중치평균

국제청소년교류의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가중치평균 조사결과는 〈표Ⅵ-3〉에서와 같다. 먼저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사업내용의 적절성 항목 중에서 “사업내용이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인 정도(4.03)” 지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목표의 적합성 항목인 “사업목표가 수행주체(정부, 민간, 지자체 등)의 근본 취지에 적합한 정도(3.89)”와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정도(3.81)”, 그리고 “사업내용의 시기적인 적절성(3.75)과 해당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 지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별 유의차 검증결과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직업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의 적정성”,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살리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정도”와 같은 평가지표에서 유의차를 보

〈표 VI-3〉 사업계획 평가지표

평가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 중 치 평 균	직업			참가경험		
				평균		t	평균		t
				지 도 자	학 생		1~3 회	4회 이상	
계 획 평 가	목표의 적합성	사업목표가 수행주체(정부, 민간, 지자체 등)의 근본 취지에 적합한 정도	<b>3.89</b>	3.95	3.80	.97	3.83	4.03	-1.10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정도	<b>3.81</b>	3.86	3.75	.67	3.78	3.90	-.73
	사업 내용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시기적인 적절성	<b>3.75</b>	3.70	3.82	-.77	3.74	3.83	-.50
		사업내용이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인 정도	<b>4.03</b>	4.09	3.96	.88	3.98	4.28	-1.78
	예산 계획의 적절성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적정성	3.50	3.35	3.68	<b>-2.29*</b>	3.48	3.59	-.61
		자체예산 반영과 외부지원 예산 비율의 적정성	3.22	2.91	3.59	<b>-4.61**</b>	3.35	2.86	<b>2.64**</b>
		참가자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3.21	2.97	3.49	<b>-2.99**</b>	3.36	2.86	<b>2.40*</b>
	프로 그램의 독창성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	<b>3.61</b>	3.82	3.37	<b>2.55*</b>	3.57	3.83	-1.22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살리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정도	3.41	3.59	3.19	<b>2.22*</b>	3.37	3.59	-1.01

\*p<0.05, \*\*p<0.01

이고 있다. 또한 국제청소년 교류 참가경험과 직업에 따라 예산 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인 “자체예산 반영과 외부지원예산 비율의 적정성”과 “참가자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문항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업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가중치평균 조사결과는 〈표 VI-4〉에서와 같다. 가장 높은 평균점수는 예산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항목인 “인력(통역, 가이드, 지도자)활용의 적절성(3.7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참가자들의 협조태도(3.77)”, “수행된 교류활동의 각 단계별 충실성 정도(3.69)”,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제가 원활한 정도(3.67)”, “교류활동 각 과정별 이행정도(3.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정평가 단계의 유의차 집단별 유의차 검증결과는 직업에 따라 “각 단계별 예산사용의 적정성” 평가지표에만 유의차가 발견되었다.

〈표Ⅵ-4〉 사업과정 평가지표

평가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 중 치 평 균	직업			참가경험		
				평균		t	평균		t
				지 도 자	학 생		1~3 회	4회 이상	
과 정 평 가	추진과정 의 적 정 성	교류활동 각 과정별 이행 정도	<b>3.54</b>	3.55	3.52	.22	3.52	3.66	-.70
		수행된 교류활동의 각 단 계별 충실성 정도	<b>3.69</b>	3.68	3.70	-.12	3.69	3.66	.23
		프로그램 진행 속도를 적 절히 조절하려고 노력한 정도	3.40	3.37	3.43	-.31	3.49	3.24	1.34
	참가자 의 견 반 영 정 도	수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의 견을 반영한 정도	3.36	3.35	3.36	-.02	3.35	3.38	-.15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 려고 노력한 정도	3.49	3.52	3.45	.41	3.56	3.38	.83
	관련기관 및 참가자 협 력 정 도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계가 원활한 정도	<b>3.67</b>	3.66	3.68	-.10	3.67	3.76	-.48
		참가자들의 협조태도	<b>3.77</b>	3.69	3.86	-1.02	3.82	3.69	.67
	예산 및 인력투입 적 정 성	각 단계별 예산사용의 적 정성	3.53	3.38	3.71	<b>-2.09*</b>	3.60	3.41	.99
인력(통역, 가이드, 지도자) 활용의 적절성		<b>3.78</b>	3.71	3.86	-.84	3.77	3.79	-.10	

\*p<0.05, \*\*p<0.01

사업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평균 조사결과는 〈표Ⅵ-5〉에서와 같이 교류활동결과의 파급효과 항목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교류참가자들의 만족도 측정결과(3.99)” 지표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정도(3.80)”, “교류시행기관 및 참가자들에 대한 기여도(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결과 평가단계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업에 따라 “계획대비 전체적인 추진실적” 평가지표 문항에 대하여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도자 직업군이 이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 VI-5〉 사업결과 평가지표

평가 단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가 중 치 평 균	직업			참가경험		
				평균		t	평균		t
				지 도 자	학 생		1~3 회	4회 이상	
결 과	사업성과 의 우수성	계획대비 전체적인 추진실적	3.63	3.77	3.45	<b>1.99*</b>	3.61	3.66	-.24
		자체 평가시행정도	3.47	3.51	3.42	.61	3.48	3.41	.39
평 가	예산집행 의 적정성	투입예산 대비 성과	3.59	3.62	3.56	.31	3.62	3.52	.55
		예산집행의 투명성 정도	<b>3.80</b>	3.94	3.64	1.75	3.75	4.00	-1.23
가	교류활동 결과 의 파급효과	참가자들의 만족도 측정결과	<b>3.99</b>	3.95	4.04	-.50	4.02	4.03	-.06
		기관 및 참가자에 대한 기여도	<b>3.75</b>	3.68	3.84	-1.07	3.80	3.72	.39

\*p<0.05, \*\*p<0.01



# VII

## 동북아 및 유럽국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례





## 1. 동북아 국가와의 청소년교류 사례

### 가.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국가가 수행하는 국제교류 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 간 교류사업과, 국가가 지원하는 교류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부 간 교류사업은 국가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사업을 지칭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부 기관으로는 청소년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이 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 부처 간 약정이나 청소년관련기관·단체 등의 상호 합의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국의 청소년기관·단체·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문화센터, 역사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함은 물론 각 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핀란드, 칠레, 멕시코, 러시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일본 청소년 교류와 한·중국 청소년교류는 청소년위원회가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청소년교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교류인원 측면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사업시행의 지속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본 청소년 교류는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매년 15일간 40명 규모로 초청·파견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는 교류인원을 3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일본의 내각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83명, 파견 576명으로 총 1,059명이다.

이외에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부와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주관으로 매년 청소년지도자, 교원, 근로청소년, 대학생 각 25명씩 100명을 1개월간 일본으로 파견하여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교양 강좌와 교류회, 산업시설, 문화유적지 견학, 민박 등의 경험을 통해 일본 청소년과의 우의증진과 견문 확대를 도모한 “21세기 우정의 계획”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21세기 우정의 계획은 1987년부터 5년 단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고, 1997년부터 제3차 사업기간이 시작되었으나,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1,478명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를 파견한 바 있다.

한·중 청소년교류는 1992년 8월 한·중 양국 간 정식 수교 후, 양국 간 합의에 의해 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주관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중 양국 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 체결(1998. 11월)에 의해 매년 20명씩 10일간 2회로 확대시행 중이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33명, 파견 358명으로 총 691명이다.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2003~2007)에서 정부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지속적 확대 및 다변화를 정책 추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를 살펴보면, 교류 내용이 다변화된 발전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일본과의 정부 간 교류는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40명 교류 인원을 30명으로 오히려 축소 조정했다.

2003년도까지 문화관광부의 일본, 중국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현황 및 직접 주관한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Ⅶ-1〉 일본, 중국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일 본(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40명씩 15일간 ('03년부터 30명)
중 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 양해각서('98)	'93	20명씩 10일간 ('98년부터 연2회)

자료 : 문화관광부(2003).

일본은 청소년교류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과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요청은 한·일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의 내실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부 간 교류 활동의 적극성과 능동성 측면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분명히 교류 목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적 차이점과 교류목표는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나 중국 청소년과의 교류에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정부 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전체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는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비교적 정착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일본,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방향성이 될 만한 선진사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교류와 한·중 교류는 정부 간 교류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류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내용의 교류가 반복되고 있을 뿐 전문화된 한·일 교류 프로그램, 전문화된 한·중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은 '97년부터 '03년까지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부 청소년 예산을 정리한 표이다.

〈표Ⅶ-2〉 연도별 사업별 청소년육성예산(국고)

(단위 : 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청소년시설	33,031	25,330	22,353	18,995	25,801	11,772	14,382
청소년육성	9,220	8,600	7,252	6,707	6,797	11,784	10,702
청소년단체지원	6,226	6,554	4,252	4,918	5,516	6,130	7,065
청소년국제교류	917	485	350	*500	550	620	820
기타청소년육성	2,077	1,561	2,650	1,431	731	5,034	2,817
기본사업비	340	270	243	252	787	579	579
청소년육성기금출연	10,000	-	-	-	-	-	-
합 계	52,591	34,200	29,848	25,954	33,385	24,135	25,663

자료 : 김정주 외, 청소년육성 기능강화 및 행정체계 발전 방안(2004).

\*산식 : 358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문화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500으로 정정함.

위의 〈표Ⅶ-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국제교류 예산 편성 수준은 다른 사업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있다. 예산 편성은 그 분야의 중요성 인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때 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수준은 정부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을 엿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 교육, 복지, 보건, 정보화, 청소년 노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는 있으나,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통계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나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996년부터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나, 문화관광부의 예산 폐지로 인해 '01년에 교류 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만료되어, '01년 이후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제시할 기관이 없어진 것이다. 어떤 분야이건 그 분야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태가 파악되어져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진행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96년부터 '01년까지 진행되어온 국제교류 현황조사 사업을 만료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의 국제교류 전담 부서였던 국제교류과가 2000년 국제지원과로 축소 조정된 것을 일례로 들 수 있겠다.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가 이를 위한 지지가반이 되어 청소년 교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담 부서의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오히려 축소 조정된 것을 보았을 때 정부의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추진 계획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양태는 정부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의 실정을 역력히 나타내고 있다.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는 위에서 지적한 인식의 문제, 그와 관련된 예산의 문제와 교류 실태 파악의 부재 등의 문제와 함께, 이외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와 교류 관련

인력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류 사업 추진 시 동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뱅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단순히 일본어나 중국어의 언어 능력이 있는 인력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질적으로 내실 있는 청소년 교류 수행에 문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 교류가 단순한 외국 청소년과의 접촉을 넘어서 교류를 통한 지적, 신체적, 정신적 면에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단순한 언어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인력의 활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 교류 청소년 전문가, 중국 교류 청소년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국 교류와 관련한 총괄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총괄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나, 타 국가들과의 교류에 비해 일본과의 교류는 전체 청소년 교류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 또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류 중 하나라는 측면과, 이들 두 국가와의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일본, 중국 교류에 대한 교류 부분에서 만이라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류의 사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는 전체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류의 단계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교류 총괄 체계 부재와 관련하여 교류 정보 접촉 측면을 일례로 들면,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교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도 국제교류 정보에 대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각 정부 기관들의 연계 협력을 통한 총괄시스템의 부재가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총괄체계 부재의 기저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모두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교류 전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각 국가별 교류 전담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각 국가별 교류 전담 체계 구축은 현지 점에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이지만, 적어도 교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교류 전담 체계 구축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협력

###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의 중요성

지방화와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정책의 중심단어로 자리 잡은 것이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는 국경의 소멸,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제경쟁의 심화, 국제협력의 중시, 국제적 사고의 통용 등으로 규정하고, 지방화는 권력체제의 다극화와 발전주체의 다원화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국제화는 경쟁의 심화와 경쟁의 국제화뿐 아니라, 경쟁주체의 다양화도 결과적으로 초래한다. 즉, 기업만이 국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학교, 기술자나 정치인, 중앙과 지방이 모두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차원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국제화와 지방화는 하나로 맞물려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와 지방화의 관계는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조화를 이루며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제화와 지방화는 이렇듯 개념상 상호 모순적이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화는 지방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방화는 국제화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범지구적 역설」(Global Paradox)의 저자인 존 나이스비트(J. Naisbitt)의 말처럼

국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최소단위의 역할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최소단위 혹은 최종단위의 역할이 커진다.<sup>9</sup>

지방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활성화를 제대로 하자면 각 지방이 국제무대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전의 경제체제에서는 도시→지역→국가→세계로 향한 광역화가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지방의 독자성은 상실되고 국가경제에 귀속되었으나, 향후의 범지구화(국제화)과정에서는 오히려 지방이 핵이 되어 살아남고 그것이 국가경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범지구적 경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범지구화가 진전될수록 지방의 독자적 국제화가 더욱 중요해지며, 특히 한 국가의 지방과 타국의 지방간 유대에 의해 국제적 맥락의 지역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점차 더 중요해진다.<sup>10</sup>

국제화와 지방화 경향은 지금 나란히 전개되고 있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지방자치는 국제화를 위한 기본단위이자, 국제화를 위한 시민학교이다. 국제화는 지방화로 내실화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따라서 지방화는 국제화를 내실화하는 길이다. 지방의 국제화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나아가 그 척도가 되어야 한다.<sup>11</sup>

국가, 국경, 국적의 의미가 감퇴될 뿐 아니라, 나아가 타국으로부터 거부감이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제화시대에 처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지방정부나 기업 나아가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보다 현명하다.

---

9 이영세, “지방의 세계화, 과제와 대응,” 『지방행정연수』, 1995. 6., pp. 18-19.

10 김경동,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한국사회학회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출판, 1994), pp. 75-76.

11 김진현, 『세계화시대의 지방화』 (여의도연구소 제1차 심포지엄 자료집, 1995년 5월), pp. 11-12.



다시 말해,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민간의 경쟁력 등을 수렴 내지 결집하여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방화는 바로 지방정부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sup>12</sup> 국제화시대의 국가발전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고, 이 같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sup>13</sup>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에 의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sup>14</sup>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은 공공기관이자 국가의 하위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건 국가의 정치·경제적 구조 및 법령체계 아래 움직일 근거도 없으며, 국제화 또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제화사업의 내용과 추진강도 등이 이러한 제약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지방정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로서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추진과정 전체가 높은 공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와 지역 사회경제단체의 참여가 허용되는 바 의사결정과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내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신념과 이해관계가 반영되게 된다. 지역사회의 산업적 특성과 주민사회의 특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구성 등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

<sup>12</sup> 최창호, “국제화·지방화의 시대,” 『자치행정』, (1995년 1월), p. 49.

<sup>13</sup> 박인호, “도시의 국제화와 대형프로젝트,” 『도시문제』, (1994년 1월), p. 13.

<sup>14</sup>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1세기 정책자료』, (1994년), pp. 37-38.

의 의미 또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사업추진 주체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비교적 단순한 경향을 지니는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sup>15</sup>

##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협력 실태

〈표 VII-3〉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류 현황

		'96			'97			'98			'99			'00			'01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청소년 교류	국가수	3	1	4	4	1	5	3	3	6	3	2	5	4	2	6	8	5	13
	인원	145	154	299	329	6	335	161	397	558	118	26	144	177	121	298	940	126	1066
청소년 연수	국가수	3	1	4	1	-	1	-	-	-	-	-	-	1	1	2	3	4	7
	인원	62	39	101	3	-	3	-	-	-	-	-	-	43	20	63	88	88	176
국제 회의	국가수	-	-	-	-	-	-	-	-	-	-	-	-	-	-	-	-	-	-
	인원	-	-	-	-	-	-	-	-	-	-	-	-	-	-	-	-	-	-
국제 행사	국가수	1	1	2	-	-	-	-	-	-	-	-	-	-	2	2	-	-	-
	인원	68	35	103	-	-	-	-	-	-	-	-	-	-	120	120			
합계	국가수	7	3	10	5	1	6	3	3	6	3	2	5	4	2	6	8	5	13
	인원	275	228	503	332	6	338	161	397	558	118	26	144	220	261	481	1028	214	1242

자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관광부 자료 재구성, 각년도.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 개방화·국제화와 함께 지방화·자율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91년 지방의회의 구성 이후 '94년 3월 지방자치법 등 정치개혁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95년 이후 외국지방자치단체들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00년 이후로 지방자치

15 김병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의 특수성과 제약요인,” 『지방의 국제화』 (서울 : 지방자치국제화재단, 1999), pp. 65-69.

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청소년국제교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 인원은 대략 300명 내지 500명이었으나 2001년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청소년국제교류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63.8(00)%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청소년국제교류 분야가 가장 높은 21.8%로 나타났으며, 문화교류(16.3%), 행정교류(163.3%) 그리고 스포츠교류(10.5%) 순으로 나타났다.<sup>16</sup>

현재 청소년국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도 83%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앞으로 국제교류 계획과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특히 장래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상대국으로 일본(40.4%)과 중국(1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교류 확대에 고무적인 시사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개 총 17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44개국의 440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

이중 일본의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중국과의 자매결연(12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80), 일본(7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중 중국·일본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전체의 46%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up>16</sup> 윤철경 외, 『새천년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표Ⅷ-4〉 일본, 중국 자매결연 현황

국가명	외국자치단체수	단체구분	
		광역	기초
일 본	78	14	64
중 국	129	16	113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45%이상이 일본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소년교류 또한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에는 양국 해협 연안 8개의 시·도가 교류하는 한편 한·일 해협 간 청소년교류가 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사례로 ① 부산광역시의 일본 시모노세끼시와의 교류(총 교류 38중 10회), ② 대전광역시의 시마네현 오다시와의 교류(총 교류 22회 중 11회), ③ 경기도의 카나가와현과의 교류(총 214회 중 14회), ④ 충청북도의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교류(총 교류 151회 중 27회), ⑤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과의 교류(총 257회 중 50회) 등을 들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청소년교류가 잘되고 있는 사례로는 ① 경기도의 정부시와 시바타시와의 청소년교류(18회)·초등학교 미술교류(3회), ② 강원도 동해시와 후쿠이현 쓰루가시와의 친선축구단교류 등 각종 청소년교류(13회), ③ 충북 보은군과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정과의 초등학교 간 교류(16회), ④ 충남 부여군 부여읍과 다자이후시·난고손과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등 교류(59회), ⑤ 전남 여수시와 사가현 가라쓰시와의 소년의 배 등 청소년 교류(12회), ⑥ 제주시와 와카야마시와의 초등학생 친선교류 등(14회)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자매결연을 맺고 양국 간 정기적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로 서울시와 동경도, 울산광역시와 야마구찌현 하기시, 충남 공주시와 야마구찌시, 경남 남해시와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경북 포항시와 히로시마현 후쿠야마현, 경기도 부

천시와 카나카와현 카와사키시, 강원도 속초시와 뚝토리현 요나고시, 경기도 광명시와 카나카오현 사가미하라시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sup>17</sup>

자매결연을 통한 청소년교류 시기도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 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일본 아마구찌현 하기시와 1968년 한·일 최초로 자매결연 도시가 된 이래로 매년 초등학교학생 간 그림교환전시회를 실시하였고, '93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스포츠교류를 개최하는 등 매년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일본 오다시와 '88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97년 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02년부터 청소년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의 자치단체 간 교류의 경우 '93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경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94년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울산 '95년 경북, 제주 '96년 광주, 충북 '98년 전남 순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75%이상이 중국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중국은 자매결연 교류의 양적인 면에서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우위에 있으나,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는 정기적인 교류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과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실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자치단체들이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기에 자매교류에 비해 아직까지 청소년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중국 자치단체와 활발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로는 전남과 절강성의 교류 사례를 들 수 있다. 전남은 광역자치

---

17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1).

단체 중 가장 늦게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매해 정기적으로 중국과 고등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 외에 중국과 정기적인 청소년교류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로 충북과 흑룡강성, 경남과 산둥성의 교류 사례가 있고, 이외에 부산시와 상해시, 경기도와 광둥성, 대구시와 청도시 등의 교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과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한 시기는 대개가 '90년대 후반으로 '00년 이후 교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중국이 일본보다 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나 실제 청소년교류는 중국보다 일본과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회체제 변화 시점이나 외교정책 등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과 교류중점을 재고해 볼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류 프로그램 대부분이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과의 청소년교류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일본 자치단체들의 제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의 교류의 경우 자매결연 체결 비율은 높으나 이에 비해 청소년교류는 아직까지 미미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들이 교류의 중점을 주로 경제분야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교류의 경우 단체장의 표면적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정도의 부차적인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교류의 경우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류 효과가 표면화되는 것도 쉽지 않기에 지

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교류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교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청소년 국제교류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체장이 자신의 임기를 넘어 효과가 발생하는 청소년교류에 대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철경(2000)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는 행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없기에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청소년교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재정부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 청소년교류를 추진하기에는 체계적이고 정착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 교류의 경우 다른 분야의 활발한 교류에 비해 청소년교류가 극히 미미한 실정인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중국 측이 청소년교류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측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성을 띄고 중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의를 한다면 중국과의 교류 사업은 활성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청소년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일본, 중국과 교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과의 후원 연계 체계 또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조직을 살펴보면 국제교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광역자치

단체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또는 통상협력과 등과 단위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국제교류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국제교류 조직관련 조사에 의하면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30.8%가 국제교류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2.9%가 전담부서가 없다고<sup>18</sup> 응답한 것을 볼 때, 청소년교류 전담 부서의 실정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중국과 교류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들의 청소년교류를 담당했던 부서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여성정책국 청소년과에서, 인천시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과에서, 부산시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충청남도의 경우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교류를 담당했었는데, 이들 부서들은 국제교류 업무만 전담하기보다는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국제교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담조직의 부재는 또한 전문인력 확보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질적으로 발전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정부 간 교류에서 지적인 바 있듯이 일본과의 교류를 위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례가 거의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성·행사성 위주의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러한 한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정기적으로 일본,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차별성 없는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

<sup>18</sup> 이정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과 교류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국가별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어 질  
적인 교류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현재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의 양적 확대 측면에까지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사업의 실태와 통계 자료를  
파악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간의 청소년교류를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자치단체 간 연계성이나 정보교류, 협력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 자치단체 간 자매교류는 시·도,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나 학생단위의 교류 사업은 시도교육위원회나 교  
육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된 행정 추진  
체계 등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일본, 중국과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보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국제청소년교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이 국제화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 및 지역청소년의 국제화와 의식수준을 선도하고 국제화 시대  
에 요청되는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꾀  
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 청소년을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국제교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을 수행하기보다 지역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민간단체를  
통해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청소  
년교류를 수행하는 지역단체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 일회성 사업보다는 민간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을 통해 궁극적  
으로 지역의 국제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  
게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나 누가 그것을 함으로써 지  
역자원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제교류사업의 개발, 모든 집단의 청  
소년이 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균형 등이 필요하다.

## 2. 유럽 국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례

### 가. 영연방 청소년교류협의회

영국의 경우 별도의 청소년정책이 없고 분산되어 기존의 여러 부문들에 스며들어 있고 구심점이 없으며 전문화된 청소년 전담부처는 물론이고 청소년담당관과 유사한 제도도 없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지 않거나 제한된 형태로만 조정할 뿐이다.

청소년교류의 경우에도 청소년교류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으며 여러 부처에서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Connect Youth가 영국의 청소년교류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관이 영국정부 및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받아, 유럽연합내의 청소년교류와 기타 지역의 국가들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는 Connect Youth와 영국의 특수한 사례인 영연방국가들과의 청소년교류를 추진하는 영연방 청소년교류협의회(Commonwealth Youth Exchange Council : CYEC)는 영연방국가들 간에 청소년과 그들의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국제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다.

CYEC 프로그램의 특징은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간에 청소년들이 쌍방향 상호교류를 통해 청소년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며, 새로운 청소년 제안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은 영연방과의 교류프로그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연방은 54개국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적절하면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지구자원이다.

둘째, 영연방은 모든 대륙에 걸쳐 있으며 많은 세계적 격차(divides)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이다.

셋째, 영연방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25세 이하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가진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공동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넷째, 급속한 세계화와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비교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문화 간 기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섯째, 영국 초등학생의 3분의 2가 다른 영연방국가에 친척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CYEC는 회원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회원자격은 영연방청소년교류에 관심이 있는 영국에 소재한 법적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교육관련 단체들이다. 현재 222개의 회원단체가 있다.

회원단체들은 여러 방법으로 CYEC활동에 참여하며, 회원단체의 혜택은 첫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보조금에 대한 정보와 조언, 둘째, 청소년과 직원들을 위한 훈련과정 등의 특별 프로젝트 참여 기회, 셋째, 국제현장훈련과정 기획과 실행지원, 넷째, 새로 출판되는 간행물, 훈련교재 등의 회원가격 구입 등이다.

영연방청소년교류의 주요 특징은 16~25세 사이의 지역청소년과의 문화 간 경험; 개인 혹은 단체 간의 2~3개년 장기 프로그램; 기획, 실행, 평가과정에 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 외국 파트너와의 방문과 초청이 이루어지는 쌍방향 활동; 청소년 자신과 지역사회에 관한 상호관심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진, 갈등해소 등의 이슈를 개발하는 주제 활동; 양국의 지역사회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와 활동에 외국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공동 작업; 스스로 노력하는 기금 모금; 즐겁고 새로운 친구 만들기 등을 들 수 있다. CYEC는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 나. 노르웨이의 국제청소년교류 지원체계

### (1)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청소년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가의 경계에 대한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국가적 한계를 초월한 다수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 물질 인적 자원의 이동성 증가로 인한 새로운 기술전파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논쟁 속에서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다수의 초국가적인 결정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급속한 국제화의 추진 속에서 노르웨이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 간의 교류증대와 세계화로의 전환은 각국이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문화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교류 및 협력의 당위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단순한 기초정보만을 접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상을 경험하기에는 나름대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다른 나라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상호교류 과정을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종교행사 등을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에게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적 전통, 사회적 전통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적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과 청소년들의 노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국제청소년 협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나라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획득한 청소년들의 지식과 경험은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노르웨이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참가자 개인에게 다른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 타문화, 그리고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또한 국가 간의 협력은 다른 나라와 타민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싫어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개인적 접촉과 청소년 사이의 협력은 이민족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으며, 인종주의(인종적 차별)를 막는 극히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활발한 국제교류 및 협력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미 세계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통치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종종 다른 나라와 유사한 청소년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이러한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있으며, 특히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 영향을 주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르웨이 지도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을 다양한 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해야 한다.

## (2) 자원봉사와 공식적 후원하의 국제협력

역사적으로 노르웨이의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접촉과 탐험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특히 상업과 해운업이 중심이었던 노르웨이는 문화와 농업, 산업 그리고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지역에 있는 노르웨이의 젊은이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찾아 국외 유학을 떠났다.

노르웨이의 집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문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매우 적었다. 1958년에 청소년들의 국제협력을 위한 공동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은 국제청소년 협력을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980년에 그 위원회는 국가와 국제협력을 위한 연합체인 노르웨이 청소년의회로 확장되었으며, 이 기관을 통해 국내와 국제 수준의 아동청소년자원기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조직은 비정부기구(NGO) 형태로 발생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협력 및 국제 동맹을 위한 많은 조직 및 단체들의 활동 중 민간 부문의 경우는 같은 이념을 추구하거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목표를 표방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제아동청소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협력은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노르웨이에서 다양한 국제회의, 세미나 그리고 연구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국제사회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얻고 다른 나라의 젊은이와 접촉하게 되며, 그들이 다른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과의 결속을 느끼기도 하며, 동시에 그들 자신에 대한 문화의 인식을 갖게 한다.

중앙정부 정책입안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계획들을 수단으로 하여 아동과 청소년 조직의 국제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노르웨이 국회보고서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제협력조직을 계속 후원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 사업은 최대한 정부의 간섭 없이 진행될 것이며, 다양성과 특성화된 각각 단체(조직)들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 내에서 국제적인 회의 및 세미나 그리고 다른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관련단체들을 격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단체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액은 수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계획들이 유럽연합(EU)의 청소년 프로그램 처럼 자금조달 측면에서 청소년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단체들(NGO) 간의 국제청소년교류 및 협력에 중요한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소규모로 조직된 그룹들 간에 국제친교는 또 다른 국제교류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기관들이 서로의 친교를 위한 교류사업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단체들(NGO)을 통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력 사업에서 양질의 내용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국가 간의 사업에 있어서 인적자원 개발과 리더십 훈련은 국제청소년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지도자들 간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 청소년지도자들과의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은 아동·청소년들의 상호교류와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와 영향력에 관한 문제, 인종주의 집단과 과격한 집단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젊은이의 생활방식과 가치관 이해, 시민사회와 민주사회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

### (3) 노르딕 국가들 간의 협력 및 국제회의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많은 공통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교류를 시작하기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북유럽 협력을 위한 전통과 사상적 기반은 수십 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나라들 사이에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역사와 문화적 유산, 그리고 이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좋은 이웃정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측면이다.

청소년 정책의 영역에서 북유럽 각료(장관)회의(NCM)의 고문단적인 북유럽청소년의회(NYC)는 매우 추진력이 강하다. 이 청소년의회(NYC)는 북유럽 협력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자발적인 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위해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북유럽청소년예산의 증액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도 한다. 또한 북유럽 국가 간 청소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액된 예산을 주변 지역, 즉 발트해(Baltic Sea) 지역과 Barents 지역 등의 청소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교육 정책의 영역에서 북유럽 각료(장관)회의(NCM)는 'Nordplus Junior and Nordplus Mini'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Nordplus Junior는 고등학교 학생들(나이 16~19)과 교사들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북유럽 나라들 간에 이동성을 높이하고자 1989년에 만들어 졌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고등학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유럽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과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각 학교들은 프로그램 'Nordplus Junior' 범위 내에 지원을 신청한다. 주된 목적은 한 북유럽 나라에 있는 학교가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와 함께 사업하는 것을 동의한 후에, 학생과 교사집단은 2~8주의 교류기간 동안 궁극적인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북유럽 각료(장관)회의는 최근에



‘Nordplus Mini’라는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을 허가하였다. 이 사업 계획은 나이 13~16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교류협력 프로그램이다.

유럽경제지역(EEA)이라는 협약을 통해 노르웨이는 1994년부터 유럽회원국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분야에서 유럽의회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유럽청소년의회의 첫 번째는 업무는 광범위한 청소년교류계획 수립과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유럽청소년의회사업의 목표는 회원국가 젊은이들 간에 접촉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국제협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계획은 주로 지중해 지역, 라틴아메리카, 중앙유럽, 동유럽에 있는 제3자 국가와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 목표는 양국이나 다국 간 중 하나의 수준에서 청소년 집단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계획의 대상은 15~25세의 젊은이들이며 협력사업의 취지는 오랜 기간 접촉을 육성해야하며, 사업계획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계획은 18~25세의 젊은 남녀에게 타국에서 6~12개월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사업계획은 자율적인 기반 위에 청소년사업 영역 속에서 지역사업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 사회사업, 또는 봉사 등의 다른 어떤 형태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경제지역(EEA) 협약을 통해 노르웨이는 1994년부터, ‘소크라테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럽의 교육적 사업계획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업계획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소크라테스 사업계획은 일반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계획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모든 수준의 교사를 포함하며 사업에 협력과 교류를 포함한다.

교육 분야에 있어 유럽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 모두를 위한 국제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협력은 교직원분야에서 교사들에게 참여 기회가 더 많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적응력 강화와 외국어훈련 기회를 제공해준다. 교육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보고서와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이해력 증진 및 사고확대, 혁신적 자세와 미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가치있는 역할을 하려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확립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에 근거하여 북유럽의 모든 주변국가에 열린교육에 관한 사업계획을 확대하고 중앙유럽과 동유럽에 국가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유럽의회는 1960년대 말부터 국제청소년 협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당면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의 접근은 자치기구, 자원봉사단체, 국제청소년의회, 국제비정부기구(NGO)의 대표자들과 의사결정과정을 협력하고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제기관들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를 통한 청소년 분야에서의 협력은 국제 청소년 행사를 위해 청소년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재정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언어능력 향상훈련은 주로 청소년 지도자에게 제공되었으며, 유럽의회는 유럽에 있는 민간단체(NGO)의 아동과 청소년들 간에 협력을 위해 중요한 발판을 제공했다. 협력은 또한 동맹국에서 청소년 정책을 위한 국가의 통치자들이 신뢰할 만큼 점차 발전하였다. 현재는 유럽의회 회원국들 간의 특별한 협력구조가 확립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각료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고 있다. 국회 보고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노르웨이에서 자라고 있는 한 노르웨이는 유럽의회에서 이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인권협약서가 1989년 UN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이를 노르웨이는 1991년에 승인하였다. 2000년 그 협의회는 197개 국가에 의해서 승인됐다. UN아동인권협약서의 목적은 시민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동'이란 용어는 연령이 18세까지로 정의된다. 그 회의는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살며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잘) 발달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영향받을 권리가 있고 배려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4가지의 주요원리에 기초한다.

아동·가족부는 아동인권UN협약서의 이행과정을 조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관한 보고와 정보활동, 프로그램 및 개별 프로젝트 추진 업무와 관련 있는 장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가 감독관으로 승인된 나라들에 의해서 실행된 것처럼 UN은 특별히 감독 전문 위원회를 임명했다. 그 나라들은 아동인권 협약서에 포함된 영역인 국가 정책의 발달을 참참이 눈여겨보고 UN에게 보고해야 한다. 2003년 4월 노르웨이는 3번째 보고서를 아동인권UN위원회에 제출했다.

노르웨이는 또한 다른 국제 공개토론과 기구를 통해 아동과 젊은이의 권리와 어린이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199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들의 노동문제와 투쟁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1998년에 노르웨이는 4년 간 이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총 660만 NOK(노르웨이 크로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노르웨이는 UN인구기금과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세계식량계획 등의 후원 아래 아동과 젊은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기울여 왔다.

최근 개편된 노르웨이 평화단체(Norwegian Peace Corps)를 통해서도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국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북부와 서부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22~35세 연령대이다. 노르웨이 평화단체(Norwegian Peace Corps)는 노르웨이와 개발도상국가의 다양한 단체들 및 연구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채용과 직업훈련 과정에 조력한다. 노르웨이 평화단체의 비전은 전문기술 전달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또한 노르웨이와 외국에서 변화촉진자들을 발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노르웨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 다. 인터넷과 청소년국제교류와의 관계분석(핀란드)

### (1) 개요

핀란드 청소년 연구소 네트워크(Finish Youth Research Network)의 Peter Waara(2003)는 발트해 주변의 주요도시들 간의 인터넷을 포함한 국제접촉(International contacts)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빈번한 국제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리더십 형성과 국제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설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하루가 다르게 인터넷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차원의 인터넷 사용빈도와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룹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학교의 교육이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국제적인 상호작용 패턴은 어떤 수준의 기본적인 기능과 이용 가능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성별, 나이, 거주 지역, 교육방식, 언어 사용능력, 그리고 인터넷의 습관적 사용정도 같은 변인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국제적 상호작용 및 접촉빈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독립변인들 중 인터넷에 대한 습관적 사용(habitual use of Internet)을 측정하는 지수는 여가(leisure), 상품구매(shopping), 그리고 지식(knowledge)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여가지수(leisure index)는 게임, 음악청취, MP3사용, 영화 및 드라마를 다운로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지식지수(knowledge index)는 학교숙제, 문화정치면의 지식, 환경적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지식 등으로 측정하였다. 상품구매 지수(shopping index)는 인터넷을 통한 경매 및 상품을 구매하는 빈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국제적 접촉(International contacts)은 국제적 접촉 빈도와 종류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구체적인 지수에 대한 측정 은 단순한 외국방문(visiting foreign countries), 유용한 외국방문(useful visits in foreign countries), 다른 나라의 친구 및 친척들과의 접촉(contacts with international friends and relatives), 그리고 국제기구의 회원가입(membership in international associations) 변수를 종합하여 점수화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발트해(Baltic Sea) 주변의 주요 도시인 Copenhagen, Helsinki, Tallinn, Stockholm, St. Peterburg의 청소년들에 한정되었다.

## (2) 연구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장 먼저 기본적인 언어사용 능력(Language Skills)과 함께 외국어 사용능력은 연령, 거주 지역, 그리고 학교의 교육시스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일 수록 훨씬 더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교육이 기술교육, 상업교육, 직업교육, 기타 인문교육에 따라 외국어를 포함한 언어교육을 강조하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언어에 대한 친숙함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한 관심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있다. 중요한 조사결과 중의 하나는 조사 대상국가 모두가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접촉과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영어 사용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 혹은 청소년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통의 언어사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관련 당사국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과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제청소년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떤 언어를 공용어 혹은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단위 프로그램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참여국가들 간의 그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주체국은 이를 참가국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언어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Ⅷ-5〉 언어 사용능력 비교(평균값)

거주 지역	평균	학교형태	평균	나이	평균	성별	평균
Copenhagen	3.15	상류층학교	2.86	17세	2.77	여학생	2.77
Helsinki	2.87	인문학교	2.85	18세	2.77	남학생	2.71
Tallinn	2.77	상업학교	2.80	19세이상	2.71		
Stockholm	2.61	직업교육학교	2.51	16세	2.70		
St. Petersburg	2.20	기술훈련학교	2.30	15세이하	2.64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는 습관적 인터넷 사용정도와 국제적 접촉과의 관계(Habitual Use of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Contacts)에 관한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논의는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국제적인 접촉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조사결과는 거주 지역과 학교의 형태는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와 국제적인 접촉 빈도와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사용 능력은 거주 지역과 학교 형태에 상관없이 두 가지 분야와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습관적 사용 변수들(여가, 지식, 쇼핑) 중에서는 지식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 변수에 비해 국제적인 접촉빈도와의 긍정적인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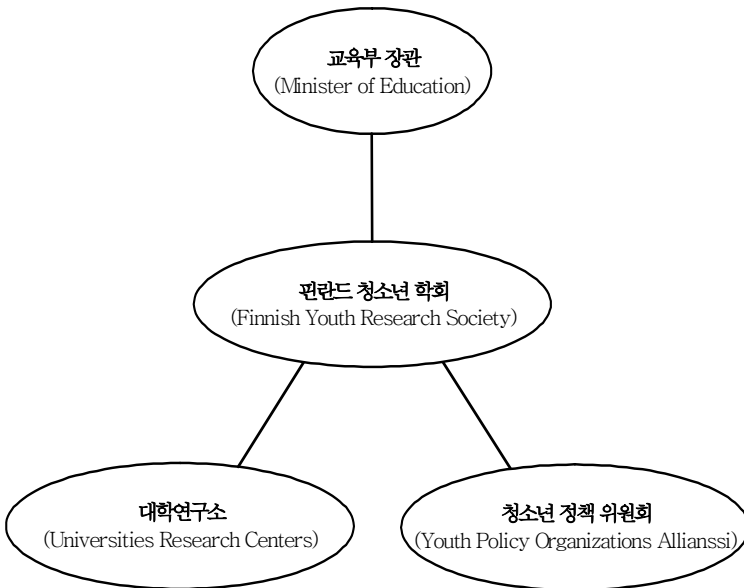
발트해 주변 국가들의 청소년들은 국제교류에 필수적인 수단인 영어를 포함하여 제2외국어사용 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이는 지리적 혹은 교통 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인접국가와의 상호교류 여건이 매우 유리하며, 그에 따라 외국어 사용기회가 높다는 지리적 여건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실질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해저터널을 이용한 육상교통로가 준공되어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일본과 한국 간에도 해저터널에 관한 논의가 가끔씩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간의 경제적인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의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

과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기점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 이르는 육상교통체계를 확보하는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하드웨어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청소년교류가 참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리더십을 개발한다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 참여와 접촉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접경험에 비추어 그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원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림 VII-1〉 핀란드 청소년관련 기관 협력구조





# VIII

## 요약 및 제언



## 1. 연구요약

이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구축하기 위한 중기적인 국가적 프로젝트의 한 영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연구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실태 파악 및 장애요인을 토대로 각 부문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구상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이미 제2차 국제청소년교류사업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청소년교류 및 협력사업의 인프라 과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학계,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중·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도시협약 등과 같은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재정,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영역별 지원시스템 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교류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국제교류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성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기본틀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북아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2. 제언

### 가. 세계적인 블록화 추세와 동북아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공유

유럽지역과 달리 동북아지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간의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영토분쟁과 역사문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신뢰, 협력, 상생의 공동가치를 통해 동북아 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으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어나가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동북아 시대의 구상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현재의 주역이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교류를 위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의 추진일 것이다.

### 나. 동북아 지역 내 다자간 청소년교류에 관한 협약체결

현재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동북아 역내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계나 사회구조의 경직성으로 살펴볼 때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일본과의 교류는 1966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양국이 국교를 재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중국과의 교류 또한 중국의 개방 이후 1992년도 양국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청소년교류는 스포츠교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제3국에서 열리는 다자간 국제행사에 자국대표 파

견을 통한 간접교류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추진한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상대국과 교류의 인원과 시기 그리고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양자 간 교류사업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향후의 청소년교류는 국가대 국가의 양자 간 교류사업의 추진과 함께 3국이 합의하는 다자간 교류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 간의 다자간 협약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은 개별국가의 위상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다자간 협약은 그동안의 포괄적이거나 개념적인 협약이 아닌 매우 구체적일 필요성이 있다. 연간 교류인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부담 범위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상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 학교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의 개선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교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세 나라 모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상주의 분위기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모두가 대표적인 청소년층으로 볼 수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엄청난 학교 학습시간과 과외 학습활동으로 인해 청소년교류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경쟁사회의 확대로 인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교육 열기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교류활동의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인프라 구

축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로 인해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청소년 교류활동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먼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상급학교 진학 시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3국간 중고등학생 교환학생과 학점 교환 제도가 추진될 수 있다면, 청소년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동북아 역내 청소년간의 더욱 깊은 교류가 가능하다.

## 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간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함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마련을 위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국가별 교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각 청소년단체들에게 보조 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케 함으로써 이들에게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정부는 정책입안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단체에서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중·일 모두 대부분의 청소년교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각국의 정부 간 청소년교류 형태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효율적인 교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마.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

수도권 주변의 청소년시설의 경우 접근성과 프로그램 진행의 효율성면에서 유리하지 못하다. 이들 수련시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온돌 위주의 숙박시설과 한식위주의 식단은 국제교류행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 국가 중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가 “한국청소년기본계획(91년)”에 조성계획을 반영한 이래 10년 만인 2001년 충청남도 천안에 개원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1998년 강원도 평창에 최초의 국립 시설로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을 개원하였으나 수도권 서울에서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근접성 면에서 떨어지고 있어 국제규모의 청소년행사나 국가 간 청소년행사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강서구 방화동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정부의 지원으로 국제청소년센터를 1999년 개원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시설내용이나 규모에 있어서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도권 내에 어떠한 종류의 국제교류행사도 충분한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저렴한 시설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1964년 일본 동경올림픽 당시 선수촌으로 사용되었던 시설을 개보수하여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National Olympics Memorial Youth Center)를 일본의 수도권 도쿄중심부 신주쿠 인근에 개관하였다.

이 시설은 현재 일본에서 열리는 각종 국내·외 청소년행사 개최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평균 시설 가동률도 6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바. 동북아 국가의 주재공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의 공조체제 구축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교류대상국의 사회흐름과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에 대한 최신정보와 함께 교류활동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 등에 관한 정보는 교류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지속적인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중요한 인프라로서도 유용하다.

현재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에 있어 대부분 인터넷과 각국의 홍보 책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신 정보를 얻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교류대상국에 직접 직원을 파견할 경우 비용과 인력 등의 제약조건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 현재 동북아 역내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공관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매우 생산적인 공조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나 관련부처가 일본과 중국에 설치해서 운영중인 문화원이나 한국홍보 관련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지 이들 기관들의 주된 임무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현지에 알리고 현지 정보를 원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단체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기관과의 청소년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위원회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청소년국제교류를 전담 지원하는 부서를 확대하여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 조직의 경직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 사. 청소년교류 항공요금에 대한 특별요금 적용검토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개인, 학교, 지방자치, 민간 청소년 단체, 그리고 정부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참가자 수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항공료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각 나라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항공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청소년교류 참가자에 대한 규정마련과 함께 특별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면 학교와 민간 청소년단체 차원의 국제교류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공무원들과 관련기관들의 공무여행에 대한 할인제도인 공무해외여행제도를 청소년교류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아. 동북아 청소년교류기금 마련을 위한 펀드 설치

동북아 역내 민간 청소년단체간의 교류활성화의 관건은 예산이다. 현재 한·중·일 3국 모두가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내용과 목적에 있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발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각국이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에서의 출자를 통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기업들 입장에서 동북아 역내 교류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외에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세계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청소년교류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산발적인 지원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펀드를 조성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 자. 동북아 지역 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비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외국을 여행하면서 여행자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교제교류프로그램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1980년부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한국 등 총 7개국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비자 프로그램은 개성이 강하고 그룹 활동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신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여명의 한국청소년들이 세계를 경험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동북아 역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추진한다면 매우 특별한 교류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는 상대국 청소년들에게 초기정착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다거나, 비자 기간의 2~3년 확대, 취업을 위한 데이터뱅크 구축과 함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법적 제도보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동북아 역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차.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채널의 다양화와 평가체제구축

현재 동북아 역내의 민간단체간의 청소년교류의 경우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각 교류 프로그램들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도 그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듯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시기적인 이슈나 사회적 관심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백화점식의 천편일률적인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영역 구분 및 특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 국제교류활동으로서 황사 및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우의립 조성활동과 청소년 환경 세미나 개최와 문화축제활동분야로는 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행사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시대가 정착되면서 컴퓨터, TV, 영화 등을 포함한 뉴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미 한류열풍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가 제작한 TV드라마나 영화 등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청소년교류에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체계화된 각 지역별 국제교류관리센터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까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원 부처에서 자의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좀더 체계적이고 내실화하여 청소년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무관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병희·박노보·이정주. 『지역으로부터의 국제화』. 대구 : 지역발전연구센터 출판부, 1995.
- 강영배·황성하. 『일본의 청소년정책과 연령별 차별화』.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권일남. 『농어촌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 서울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2003.
- 김경준.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경동. 『국제화와 지방화 : 개념적 고찰.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 나남 출판사, 1994.
- 김안제 외.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 : 박문각, 1994.
- 김완순 외.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서울 : 무역경영사, 2000
- 김유남 외. 『국제관계연구의 쟁점과 과제(21세기)』. 서울 : 박영사, 2000.
- 김은정. 『청소년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2003.
- \_\_\_\_\_. 『청소년관련법 제(개)정 설명자료』. 서울 : 문화관광부, 2004.
-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2005년도 시행계획』. 서울 : 문화관광부, 2005.
- 윤철경.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서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9.
- 윤철경·김안나·김성희. 『한·일 교류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윤철경·이상오·김경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와 평가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윤철경 외. 『새천년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이민희 외. 『청소년교류론』.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이은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 이종원.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조사-한·중·일·미 4개국 비교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정희옥·전경숙·권오실.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조영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천』. 청소년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3.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국제교류 업무편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2003.
- \_\_\_\_\_. 『국제교류 업무편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 교류재단, 2004.
- 한상철 외. 『청소년지도론』. 서울 : 학지사, 2001.
- 함병수 외.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1.

## 2. 논문

- 강길현. “청소년 여가활동 참여정도와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9호, 2003.
- 강영배. “현대 일본 청소년 정책에 관한 다면적 고찰 및 시사점,”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4.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 국제교류활동을 중심으로,” 『경남개발』. 제 39호, 경남개발연구원, 1999.
- 권일남·남부현. “농어촌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6권 제3호, 한국농업학회, 2004.
- 구창모.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5호, 한국체육학회, 2004.

- 김문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국제교류』. Vol.34, 서울 : 한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1999.
- 박용길,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 강원도의 국제교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03.
- 박진규, “우리나라 국제 청소년교류 현황과 교류유형 탐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2004.
- 양기호,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중·일 지방간 국제교류,” 『일본연구논총』. 제20호 현대일본학회, 2004.
- 조혜영,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의식과 한·중 청소년 교류 전망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2003.
- Brecher, R. & Diaz-Alejandro, C. Tariffs, Foreign Capital and Immiserizing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71.
-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Macmillan and Company Limited, 1939.
- Daniels, Peter. *Technology, Internationalization of Service and Metropolitan Areas*, in John Brotchie et al. eds, 1991.
- Deng, Shengliang, & Lawrence, Wortzel H. Importer Behavior : Guidelines for Asian Exporte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2(1), 1995.
- Dzubay, Dawn. *Understanding Motivation & Supporting Teacher Renewal*. Quality Teaching and Learning Series, 2001.
- Frankel, Joseph. *International Theory and the Behaviour of States*. Oxford Univ. Press, 1973.
- Friedmann, John.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Newbury Park, C.A : Sage, 1973.
- Kalisch, K.R. *The Role of the Instructor in the Outward Bound Educational Process*. Wisconsin: Wheaton College, 1999.

- Kolb, D. *Experiential learning :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4.
- Konopka, G. *Social Group Work : A helping process*. N.J. : Prentice-Hall, 1972.
- Newman, O. Coming of a leisure society? *Leisure Studies*, 2(1). 1983.
- Romsa, G. & Hoffman. An application of nonparticipation data in recreation research : Testing the opportunity theor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980.
-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 Glasgow Edition, 1976.
- Sullivan, D. & Bauerschmidt, A. Incremental internationalization : A test of Johnson and Vahlne's thesi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31. No.1, 1990.
- Truda, Roper. Optimizing the 4-H exchange. *Journal of Extension*, 1993.
- 呂嵐, “區縣經濟發展中青年國際交流与政府功能研究”, 中國人民大學公共管理碩士論文. 『國際公法百科全書』 第9卷, 阿姆斯特丹北荷丹出版公司. 1986年. 2003.
- 鄧小平 : 『鄧小平文選』 第3卷, 人民出版社, 1993年版, 第282頁.
- 江澤民 :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年11月8日.
- Eva Van Buren, 『新生代』. 2001年2月4日.
- 外国人登録法.

### 3. 기타자료

교육기본법  
문화관광부



인터넷사이트 법령자료실

재외동포재단법.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http://www.fry.or.kr/bbs/mbbs\\_view.asp?b\\_idx=-24&id=ad&page=1&bs](http://www.fry.or.kr/bbs/mbbs_view.asp?b_idx=-24&id=ad&page=1&bs)>.

<<http://www.yfukorea.org/new4.htm>>.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 논문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년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 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